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13호 2020년 5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인류애, 고난 극복의 열쇠"

성숙한 시민의식·헌신으로 바이러스 극복할 터

COVID-19 특집

그리스어로 'Pan'은 '모두'를, 'Demic'은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경보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 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Pandemic'이라 칭하고 이를 전세계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그 동안 전 세계를 움직인 커다란 변화들을 꼽자면 산업혁명, 세계대전, 세계공황 등을 들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페스트, 에볼라,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질병들 또한 그 커다란 변화를 견인했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이렇다할 세계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던 지구촌 각국들은 자연환경보호나 자국경제보호 등을 내세우면서 신기술들이 접목된 '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등장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혹자는 세계적인 전염병이나 생물무기테러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우리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그 것은 국가를 움직이는 몇몇 집단에서나 해당하는 '남의 일' 쯤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대혼란의 시기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하던 사업이 어려워 지거나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많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시기가 인생을 바꿔놓을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큰 변화들이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한민족의 핏줄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와 터를 잡고 살아가는 많은 한인들의 상황도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어쩌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며,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난세에 영웅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시절에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대

처가 뛰어난 나라', '의료서비스가 훌륭한 나라'로 새롭게 국가를 브랜딩하게 되었으며 '삼성', 'BTS', '기생충'을 넘어서는 인지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또 하나의 '최고'가 되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동문들이 이러한 글로벌적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숨죽이고 위기를 피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 지 떠올려 본다. 작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Stay Home, 그리고 마스크 쓰기와 같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에서 부터 더 나아가서는 백신개발, 의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일 까지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수 있는 일 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수십만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의료진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금도 프론트 라인에서 치열하게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싶다.

COVID 19와의 싸움에서 이겨 동문들이 함께 모여 지난 날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동문들의 건강을 기원해 본다.

<관련칼럼=4,5,6,7,14,15,16면>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회의

공/지/사/항 8월21~23일 NJ 더블트리 호텔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유럽의 여러나라를 휩쓸고,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현재 80여만 명의 감염 확증자, 4만이 넘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 재앙이 우리 모두를 공포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미 연방 및 지방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국가의 온 역량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은 피해의 정점에 근접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언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지 불확실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미주동창회는 제 29 차 평의원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종전 6월 스케줄 대신 2개월 뒤인 8 월 21-23일 (금-일)이고, 장소는 지난해 평의원 회의를 개최했던 Double Tree Hotel by Hilton (뉴져지 포트리 소재) 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가는 것에 따라, 평의원 회의 행사에 필요한 호텔 예약 및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를 동창회 신문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어려운 이 난관을 잘 이겨내고, 의미있는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각자 극복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동창회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때부터 역병은 전쟁과 함께 인간 공동체를 수차 괴롭혀 왔습니다. 첫번째 기록된 역병은, 기원전 430년 스파르타 동맹국과 아테네와의 전쟁, 아테네의 관문 피레우스 항구에서 발병된 후 아테네를 덥쳐 도시인구의 1/3을 죽음으로 몰고간 무서운 역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아테네인은 전의를 잃었고, 패배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신의 가호를 비는 외침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아테네 하늘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절망감과 무정부 상태로 가득찼다고, 후세 역사가는 기록했습니다.
그 후 14세기에는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에 창궐했고, 유럽인구 1/3 의 생명을 앗아간 페스트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페스트의 공격이 끝난 후엔 중세의 농노제도가 무너지며 대 해양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 생활의 위협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반응하느냐 일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어야 날개를 폅니다. 내일의 태양은 떠 오를 것이고, 인간은 현 위기를 극복해 낼 것입니다. 내일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했듯이, 미주 동창회는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밝은 미래를 위해 굳건히 동창회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000명 새 동문 영입 및 주소록 업데이트와 오랜 숙원 사업인 미주 동창회 재정 자립을 위한 삼백만불 모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하며, 삼가 동문 여러분의 안위를 간구드립니다.

신응남 회장 배상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오세정 (서울대 총장)

/ 모교 총장 담화문 /

코로나 이후, 그 변화에 대비하자

서울대학교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코비드-19 감염 사태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울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동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 편지로 간단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학생 확진자가 소수 발생하였고,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만 한 구성원들도 있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은 취소되었고 개학도 2주일 연기되었습니다. 3월 16일 개강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비대면 강의는 벌써 4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같이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도 서울대 가족들은 묵묵히 학업, 교육, 연구에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입학을 기다렸던 신입생들이 정상적인 대학생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 매우 가슴 아픕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수습되어 캠퍼스에 활기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졸업식이 취소된 서울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 사태로 입학,졸업식 취소 등 영향
> 불확실성 속, 안전을 위해 대면강의 유지
>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변화에 대비 해야
> 인류공동체를 위한 동문들의 역할 기대

그러나 아직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위험은 여전하고 세계 곳곳으로부터 감염증이 역유입 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대학과 구성원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총장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본부에서는 이번 학기동안 별도로 대면 전환이 결정될 때까지 이론 위주 수업의 경우 비대면 강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이 수업방식은 학기말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강의가 필수적인 실험/실습/실기를 포함하는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한적/단계적으로 대면 수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의 학습 환경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급제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강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실 있는 원격 수업을 위한 교수와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교수/강사님들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교무처가 중심이 되어 온라인 강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소외계층의 경우 원격강의 수강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긴급구호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필요도 각별히 살펴 원격강의 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아직 매우 불확실하고,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 극복의 역사이며, 우리나라 역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도 이겨낼 것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미래 세대에 이어줄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 편입니다. 과학을 비롯한 지적 유산 역시 우리 편입니다. 지금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유효한 조치들이 시시각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대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 또한 내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위기가 지나간 후 세계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사회 제도 등 인류공동체는 영구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SNU 국가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곧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크지만, 이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연구업적, 좋은 성과 등도 중요하지만, 이 모두는 더욱 중요한 가족, 동료, 공동체 모두의 평안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안녕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와 과학이 우리의 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나, 가족, 지역, 나라 그리고 인류 공동체 전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장 직무대행 인사말 /

이제는 '단합' 입니다

이희범 수석부회장
(총동창회장 직무대행)

春來不似春!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개하면서 봄은 분명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인류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울대인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월20일로 예정된 정기총회가 연기되고, 신수정 회장님의 임기가 3월25일로 종료되어 제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수석부회장으로서 동창회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만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정관상 불가피한 조치임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만 서울대인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 서울대인들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인류의 복지를 위해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는 40만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 단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2만7천 명의 서울대 재학생과 4천3백 명의 교수님들이 학업과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대인들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력이나마 주어진 임기 동안 40만 서울대인들이 하나로 뭉치고 동창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산·골프·바둑 등 동호인회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대인들의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교와도 끈끈한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세계의 대학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동창회를 이끌고 지원해주신 신응남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과 학교 당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넉넉하게 크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단합입니다. 모든 동문들이 내 일처럼 동참하고, 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가 회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장 이임사 /

"지난 시간, 큰 영광과 보람"

신수정 (27대 동창회장)

존경하는 40만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문님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는 3월 25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부족한 제가 무거운 책임을 맡아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임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총동창회장으로 보낸 지난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교는 1946년에 했지만 1969년 총동창회가 창립하면서 비로소 '우리 모두 같은 서울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단대동창회와 함께 한 50주년 기념음악회와 미술 경매전, 기념 연극 등의 행사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총동창회 장학사업은 모교 재학생 1,300여 명에게 연간 장학금 총 37억 원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대학동창회 중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노벨상을 꿈꾸는 젊은 교수들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모교와 협력해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회장추대위원회는 차기 제28대 회장에 이희범 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기총회를 연기하는 바람에 차기 회장의 취임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해진 임기대로 3월 25일 물러나고, 3월 26일부터 이희범 동문이 회직에 따라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희범 전 장관님은 제가 가까이서 능력과 인품을 뵐 기회가 있었기에 적임자를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모시게 돼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보류한 2018년도 결산안은 새 회장님 체제가 들어서면 면밀히 검토한 뒤, 차기 총회에서 2019년도 결산안과 함께 승인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50년간 큰 업적을 이루신 전임 회장님들의 뒤를 잇기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여성 총동창회장이라는 문을 열었고, 예술전공 동문으로서 회장을 맡아 동창회 역사에 작은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을 위로로 여깁니다. 성별과 전공을 가리지 않고 더욱 다양한 동문이 총동창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총동창회를 믿고 참여하고 지원해주신 동문님들, 또 총동창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신 오세정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당국과 총동창회 임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궂은 일들을 묵묵히 도와준 사무처 직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대 동문의 화합이 서울대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동창회가 힘차게 나아가기를 동문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류재풍 (법대 60)

/ 시사칼럼 /

COVID-19 팬데믹과 중국공산당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우한 바이러스의 그림자는 전세계를 어둡고, 외롭고, 아프게 하고 있으며 전 인류의 생명과 경제를 쉴새없이 위협하고 있다. 그 규모나 파장은 대단 할것이고 오래 갈 것이다.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넘을 것이다. 가히 세계대전에나 비교할까? 수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에피소드이다.
14세기 중엽 구라파의 Black Death 와 수십년후에 시작한 르네상스가 유관하듯이 우리가 지나갈 지금의 펜대믹은 어떤 위대한 유산을 남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산여부를 상상하거나 따질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사치스러운 얘기다.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다. 직장들은 종적을 감추고, 모게지 낼 날은 더 자주 다가오는 듯한 기분, 은행잔고는 수로가 끊어진 우물같이 먼지만 펄펄나고, 배고픈 노숙자는 손내밀고 서있을 자리도 없고, 그 앞을 지나가는 차들도 뜨문뜨문... 정말 이난리를 어떻게 지나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요. 오늘도 내일되면 역사니까. 불결한 환경에서 오래 살아온 시내의 흑인 게토에 던져진 타격은 더욱 심하다. 바라건대, 이경험을 계기로 좀 깨끗해 질수도 있겠지.
도대체 우리가 왜, 어째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우한 바이러스는 상대할수 없는 invisible enemy이기 때문에 싸울수가 없다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자연에 책임을 어떻게 묻겠는가?
아닐 것이다. 책임을 물을 상대는 있다. 원상회복을 불가능하나 고통을 많이 덜어줄 수는 있다. 다음과 같은 제안이 가능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은 COVID-19 Pandemic의 시작/확한 바에 책임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당한 국가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 근래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사람들이나 또는 중국인과 비슷하게 보여지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한 폭력행위가 간간히 보도되고있다. 중국사람들은 무죄하다. 동양인들을 목표로 하는 이 같은 폭행은 인종차별주의자로 지적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가서 눈 흘기보다 더 무분별할 뿐 아니라 불학무식의 소치이다.

코비드19 재앙의 원흉은 CCP이다. 결코 중국인민들이 아니다. 독재정부와 핍박을 받는 시민들을 한덩어로 묶어 다루는 것은 옳지못하다. 예컨데, 북한의 김씨왕조와 2천5백만의 북한주민은 구별되어 불러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쏘았다." 천만의 말씀 ... "김정은이 핵무기를 쏘았다."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책임은 CCP이지 중국인이나 중국문화가 아니다.

근래 미국의 학계, 정계, 재계등에서 "CCP 책임론" 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에서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CCP 책임론"을 주장하는 문헌 또는 동영상
1. Cancel All debt to China
https://americanmind.org/features/the-coronacrisis-and-our-future-discontents/cancel-all-debt-to-china/

중국 의료진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중국은 책임을 인정하고 전세계에 보상해야
> 중국 공산당, 초기 우한폐렴 은폐 축소 의혹
> 미국과 유럽 내 동양인 향한 인종차별 우려

2. John Bolton declares China 'responsible' forcoronavirus ...
https://www.foxnews.com/world/john-bolton- declares...
3. Senator Tom Cotton Thinks Coronavirus is a Bioweapon; China Mounts Feeble Response
https://www.ccn.com/tom-cotton-thinks-coronavirus-bioweapon-china-mounts-feeble-response/
4. Gordon Chang believes it's probable that coronavirus pandemic originated in a Wuhan
labhttps://www.msn.com/en-us/health/medical/gordon-chang-believes-its-probable-that-coronavirus-pandemic-originated-in-a-wuhan-lab/vi-BB12H1LL

■ 작년 2019년 11월 중순경부에 우한소재 중국비뇨기 연구소 (Chinese Institute of Urology) 에서 새어나온것이 우한 바이러스이다. 이것이 팬데믹 확산의 시작이다.

■ 12월 중순경에는 새로 나타난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다는 사실등이 CCP에게는 기정 사실이 되었다.

■ CCP이 우한폐렴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세계에 공식발표한것은 다음달 2020년 1월 20일경이다.

■ 한달이상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to-사람 전염사실은 상기한 1/20/2020 공식발표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 공식발표가 있기 얼마전 작년 12월 말 숭고한 양심 인사인 안과의사 리원량은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최초로 세상에 알려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CCP는 Dr. 리가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퍼트렸다고 하여 훈계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 이같은 CCP의 행태는 8,000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800명의 사망자를 낸 2003년 사스 때와 변함이 없었다. 진실을 덮고 세상을 거짓으로 안심시켰다. 설사 처음부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전파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1월 20일까지 사실 발표를 지연 시킨일과 사람간의 전파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CCP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지 하면서도 사람들의 출입국을 한동안 제한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가 전세계에 끼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미리 예측할수는 없었다 해도, 어떤 저의가 (우한폐렴이 세상에 퍼뜨리려는 의도) 의심된다. 설사 그런 악의가 없었다해도, 용서할 수없는 수준의 과실 (most reckless failure). 이같은 과실의 책임의 경중은 그 과실로 인해 생겨난 피해의 정도로 판가름 해야 한다는것이 문화역사를 초월하는 세계적 인간적입장이다.

■공포의 전염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고있던 문명세계는 급작스런 위기를 당하면서 여러가지 의료물품의 부족현상을 맞게 되었다. 마스크, 의약품, 의료보호장비 등의 부족현상으로 더 많은 희생자 발생을 초래했다. 이같은 와중에 CCP의 주사로 이같은 장비를 미리 사재기 했다는 정보가 만연되있다.

자신들의 영토내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고 있다. 이같은 물자부족현상을 예견하고, 사재기를 통하여 부족물자를 더욱 부족하게 하면서, 물자들을 더욱 비싼갑에 팔면서 CCP가 얼마나 후덕한지를 과시하며 생색까지.... 강태공, 제갈량수준의 묘략들이다. 풍악속에 명시 읊고 노래하면서 조조의 화살 10만개 이상을 접수한 제갈량의 수준 ... 책략 9단?!

■ 책략수준을 고사한다면 파렴치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내 친구 Gordon Chang의 말을 인용한다면 CCP's actions were Crime Against Humanity.

■ 소설 "The Count of Monte Cristo" 의 저자 Alexandre Dumas 왈: "범인은 범행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중에 있다." 중공산 코비드 19 팬데믹을 통하여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했을까? 그래서 저지렀던 범행이던가? 피해국들은 CCP로 은 얼마나 많은 보상을 언제 어떻게해야하는가?

상기한 "Cancel All Debt to China" 에서 저자인 Gunnar Gundersen는 CCP가 소유하고 있는 1조원의 미국빚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는 아이디어를 심각히 고려해 보자.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박계영 (의대 84)

/ 의학적 분석 /

코비드(COVID)19 와 의학연구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 코비드-19 (COVID-19)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있다. 전 인류가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과 혼돈에 싸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불안감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병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 사회적 손실만 해도 천문학적인 양인데, 그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져가고 있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기존에 보고된 임상양상과 호흡기/중환자실을 담당하는 한 의사로서 현장에서 지켜본 양상을 종합해보면, 대개 잠복기는 3-10일 정도인 것 같고, 초기 증상은 목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발열 등을 호소하는데 이는 환자에 따라서 한 두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발열을 중요한 질병 감시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나, 발열이 전혀 없는 경우도 가끔 있다. 병이 진행하면서 가슴을 짓누르는 흉통, 두통, 설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임상증상들은 환자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독감(influenza)과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과 비교되는 코비드19의 독특한 임상증상은 매우 높은 폐렴 소견이다. 감염자의 80-90%가 병의 경과 중에 폐렴을 경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 병으로 인한 공포의 주 원인이다. 방사선 소견으로 보면 바이러스성 폐렴에서 보는 간유리 음영(ground glass opacity)을 보이는데, 일반적 흉부 방사선상에서는 자주 간과될 수 있으나, 흉부 CT 영상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폐렴의 중증도(Severity)에 따라서 저산소증이 동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병원의 입원기준은 폐렴과 저산소증의 중증도이며, 기존의 역학연구를 보면 감염자의 약 20%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폐렴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약 30-50%가 중환자실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 잠복기 3~10일… 초기증상 목통증, 기침, 발열 등
> 독감과 비교되는 높은 폐렴 소견이 공포의 원인
>
> 전체 감염자 최대 10% 중환자실 치료 필요
> 무증상·비말전염 우려에 사회적 통제 불가피

대개 80% 환자는 자가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속히 발생하는 호흡곤란이 종종 있어서 자주 산소 포화도 같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물론, 심폐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산소증이 좀 더 심하게 오는 것 같다. 전체 감염자의 5-10%가 결국에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 병원 중환자실이 코비드19 환자로 채워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경과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중환자실에서 적절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경우 대부분이 쉽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 문제는 인공호흡기 치료가 대개는 1주이상, 길게는 3주까지 걸리게 되고, 중환자실 병실이 코비드19 환자로 가득 차게 되면서, 계속 추가로 늘어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 많이 우려되고 있다.

각국의 사망률을 보면 중환자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발생율이 조절되는 나라(한국, 독일)와 그렇지 못하고 급격한 발생율로 환자실치료를 받을 수 없는 나라(중국 우한, 이탈리아)에서 사망율의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병의 치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고 임상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나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코비드19는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비말감염(droplet)이 제일 중요한 전파기전이고, 접촉(contact)을 통한 감염도 접촉한 손을 통해 기도감염이 가능하다. 환자의 기침을 통해 만들어진 비말(aerosolized droplet)이 공기중에 어느정도 포말상태로 떠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감염된 환자가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무증상 잠복기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어서 사회적인 통제와 격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꼭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코비드19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인적및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질환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개발이 그리 쉽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때까지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매우 크리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 인류를 휩쓰는 코비드19 를 보면서 의학연구와 과학개발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들 공감했으면 좋겠다. 십 수년 전에 지금의 코비드19와 거의 유사한 SARS유행이 있었을 때 좀 더 많은 과학투자와 의학연구로 치료제나 백신연구가 이미 되었더라면 지금 일어나는 양상이 많이 달랐을 것 같다. 그러나, 후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이 현실을 다들 잘 헤쳐 나가서 건강한 사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일리노이 의대 부교수
폐렴, 중환자 수면 및 알레르기 전문>

김자성 (의대 79)

/ 정신과적 분석 /

코로나 사태 심리적 생존전략

전 세계로 번진 이번 코로나 역병을 보면서 우리 세대에 이렇게 깊게,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면으로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 안전에 대한 염려, 둘째는 경제적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리라.

첫번째, 안전, 생존에 대한 염려이다. 실존주의 정신의학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 불안은 죽음의 불안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의식적인 면 보다는 무의식적인 즉 억압된 부분이 더 크다고 한다. 의식적으로는 죽음에 대해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부분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 사태로 이런 일상적으로는 억압/잠재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자극되니, 화산이 분출되듯 불안이 터져 나온다.

어떻게 이런 불안을 다룰 건가? 여기에 대한 정신의학적 정공법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직면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평소의 정신적 수련으로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현실인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친숙해지는 수련이 필요하다.

만일 종교인들 같이, 천국에 대한 믿음, 또는 윤회 환생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있다면, 또는 최근 누적되고 있는 이런 영적 차원을 시사하는 과학적/경험적인 연구 자료에 근거,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 죽음의 불안을 대면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다. 또는 어떤 부류의 유물론적 과학/철학자나 실존주의자들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제한된 삶의 현실을 용감히 받아들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대단한 심리적인 성취라 생각이 든다.

어쨌든 예로부터 전해오는 격언,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는 큰 가르침을 평소에 수행 한다면, 지금같은 상황에서 집단적인 불안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계기로 매일 죽음 명상 등을 통해 내적인 수련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앞으로 더 우리 삶을 고양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생명, 안전, 경제적 불안과 스트레스 가장 심각
평소 죽음에 대한 불안과 직면하는 수련 필요

집단적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 태도 중요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쓰는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죽음은 실제로 삶을 파괴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실존주의 정신의학의 교훈을 되새기게 된다. 이런 수련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 잠드는 시간을 죽음의 명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잠드는 순간에 정신을 집중하고 아 이제 오늘 내 마지막 날을 살았구나. 이제 죽으러 간다는 마음으로 잠드는 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며 잠을 맞는 것이다. 마치 독배를 들고 죽어 가는 과정을 활짝 열린 관찰자의 자세로 임한 소크라테스 같은 자세이다.

연로하신 달라이라마도 매일 일정 시간 죽음의 명상을 하신다고 들었다. 우리가 언제 죽어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삶에는, 코로나 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죽음도 더 이상 위협일 수 없고, 하루하루는 덤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 선물인 셈이다.

경제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어떤 걸까?
지금 세대는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나온 세대이다. 지금은 모든 게 풍요롭고 차고 넘친다. 대형 마트나 수퍼 마켓에 가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널려 있고 때로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 사보는 수도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쓰는 지혜를 실천하면 어떨까. 무소유 정신을 표방하신 법정 스님 같은 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정신의학자가 얘기하는, <소유>중심의 삶, <행위>중심의 삶, <존재>중심의 삶에도 연결되는 것인데, 인간이 발달을 계속하는 한, 이 방향으로 삶이 발달,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6,500만년전에 큰 혜성이 유카탄 반도를 강타하며 일어난 전 세계적인 천재 지변으로 공룡시대가 끝나고 그 뒤로 포유류의 시대가 출현하였듯, 이번 코로나 사태는 뭔가 이런 새로운 존재방식이 세계적 규모에서 출현하기위한 혜성같은 충격이 아닐지 상상해 본다.

<소유>위주의 삶이, 그 다음 단계의 <행동>위주, 또는 보다 상위인 <존재>위주의 삶으로 진화 발전하는 촉매제로 될 수 있을지, 먹구름 뒤에 빛나는 은빛 띠를 그려 본다.

<정신과 의원 원장(LA)>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민일기 (약대 69)

/ 전문 칼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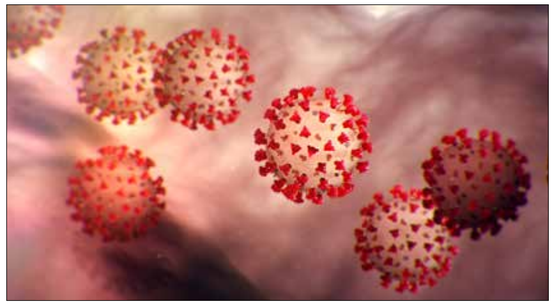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 ①

바이러스는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로서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도 단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이러한 단세포보다도 훨신 작아서 유전정보를 지닌 RNA나 DNA중 한 가지만 가지고 단백질 표면이 이 유전정보를 감싸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련의 바이러스 종류의 일종으로 보통은 주로 새나 짐승들에 병을 일으키지만 때로는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는 다른생명체에 기생하여 감염된 세포안으로 들어가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인자를 결합하여 세포가 분열하는 기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증식하고 나면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게 되고 감염된 세포는 사멸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와 같이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SARS2(SARS-CoV-2)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WHO에서 공식적으로 COVID-19(Corona Virus Disease 2019)로 명명하게 됐다. 이 바이러스는 보통보다 특이하게 큰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겉표면을 싸고 있는 단백질에 스파이크같은 돌기가 많이 돋아나서 그것이 마치 태양이 불붙는것 같은 모양(Corona) 또는 왕관모양 이라고 해서 코로나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독감바이러스, SARS나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도 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한다. 감염됐을때 증상은 독감증세와 비슷한데 기침, 발열, 근육통, 호흡곤란, 편도선염등인데 18-59%는 무증상이거나 81%는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고 심한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는 대개 감염후 4일정도 지난다음 일어난다. 현재 사망율은 감염자의 0.8%-2%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라와 의료체계에 따라 달라 이태리같은 나라는 13%에 달하고 있다.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폐에 심한 염증으로 인한 물이 차는 ARDS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성인호흡마비 증후군)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말에 중국 후베이성 우환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순식간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4개월 남짓 지난 시간에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13만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대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에서만 이글을 쓰는 4월 16일 현재 683,7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0,279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현재도 아무나 검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실정이니까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은 이보다 수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접촉을 요하는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필요없는 행동을 정지하고 가택에서 거하게 하므로서 가파른 증가 추세는 서서히 완만하게 바뀌고 있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치닫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현재 확실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1-2년은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가운데 살아야할 실정이다. 또 백신이 개발되었다 해도 매년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독감(Flu) virus처럼돌연변이를 잘 일으키는 RNA바이러스의 특성상 이 COVID-19도 매년 백신을 맞아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쓰이고 있는 COVID-19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신약 허가 평균 10년, 최대 3억달러 비용 소요
현재 ramdesivir, Oseltamivir 등 임상실험 중
실제로 일부 효과 보이지만 결과는 '미지수'

Ⅰ. COVID-19의 치료제 개발 현황 : 미 식약청에서 신약이 허가를 받으려면 보통 10년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고 1억불에서 3억불까지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 보통 전임상단계에서 스크린한 신약 후보물질이 유망하면 동물실험과 in vitro실험을 통해서 약물의 임상효과와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것을 통해 유망한 물질들은 FDA에 허가를 신청하여 다음단계의 환자를 통한 3상의 임상실험을 거쳐 임상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1-3상의 임상단계에서 마지막 3상(Phase 3)에서는 대개 2개이상의 엄격하게 design된 실험으로 1000명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 이중맹검실험(randomized double blind trial)을 통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비로서 허가를 받아 시중에 판매할수 있고 환자에게 쓸 수 있는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단계를 제대로 거쳐서 허가를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비싼 약값의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쓰고 있는 치료제 현황> 현재 미식약청(FDA)에서 COVID-19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은 아직 없다. 알려진 Remdesivir (렘데시비르), Azithromycin(아지트로마이신) 등은 대개 이미 다른용도로 허가를 받은 약물(그래서 최소한 안전성이 입증된)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것을 그 약리작용에 근거해서 COVID-19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있다.

대체로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항바이러스제제로 직접 바이러스의 성장, 증식단계를 차단하는 약물, 둘째, 항염증작용등이 있는 약물들로 심한염증으로 인한 중증 증상을 완화시켜 회복시키는 약물들, 셋째는 이미 COVID-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항체를 사용하여 환자들이 면역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약물 등이 현재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아직 충분히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은 않았지만 비상사태에 사용할만한 약물이 현재 없기때문에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도 백신개발이 중요한데 백신개발은 현재 임상연구에 들어 가려고 하는 제품만도 70여개 회사가 있다고한다.

1. 항바이러스제제:
이중에 제일 유망한 제품이 Gilead제약회사에서 개발중인 ramdesivir라는 약물이 있다. Gilead는 원래 항바이러스치료제 전문 제약회사로 에이즈치료제, 바이러스성 간염(특히 Hepatitis C)치료제를 개발하여 성장한 회사인데 ramdesivir(aka, GS-5734)는 Gilead에서 이미 2013-2016년에 있던 Ebola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창궐할때 Ebola 바이러스치료제로 개발한약이다. Ramdesivir가 선택적으로 viral RNA polymerase에 결합하여 virus RNA가 증식하는것을 차단해 주는것이 이약물의 기전이다. 동물실험에서 Ebola virus를 증식억제하는것으로 기대를 모아 실제 환자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했는데 실제 환자에서는 Ebola에는 그리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데 Ebola virus보다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 MERS virus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것이 밝혀져 COVID-19에 바로 임상실험에 들어 갔는데 중국에서의 임상관찰 결과 (randomized, double-blind trial이 아닌)가 상당히 호의적인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오고 그것에 힘입어 미국에서 실행한 Phase 3임상실험에서도 최근 현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상당히 유망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다. 이 제품은 주사제로만 쓸 수 있는데 현재 임상실험은 중증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 환자들을 위해 사용 하였는데 대체로 현저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항바이러스제제의 특성상 초기 경증환자에서의 바이러스증식을 차단할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용하는데 적합한데 주사제로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약점이라고 할수 있다. 부작용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리 심하지 않다.

그밖에 Lopinavir/ritonavir 등은 원래 에이즈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제인데 바이러스의 Protease를 억제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물이다. 처음 중국에서 환자가 창궐할때 항말라리아약인 Chloroquine이나 Hydroxychloroquine과 같이 사용했는데 경구로 투여할수 있기때문에 경증인 환자들에게도 쓸수 있다. 아직 이 제제의 임상효과는 알려진게 없다. 그밖에 독감치료제로 쓰이는 Oseltamivir (Tamiflu)로 지금 임상적으로 실험하고 있는데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 비슷한 속성이 많기 때문에 듣지 않겠나 하는 추정으로 쓰인다고 할수 있는데 아직 결과는 미지수이다.

- 다음호에 계속

참조> 1. Chen , et al. Journal of Infection 2020
2. Van Doremalen, et al. NEJM 2020
3. Zhou, et al. Lancet 2020

"면역력 키우는 데는 등산이 최고죠" 남가주 산악반 등산

남가주 서울대 동문산악반(회장 김동근)이 지난 3월8일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셧다운이 있기 전, 20여 명 참가자들은 라카냐다 뒷산 플릿처 폭포 피크닉 장소에서 게이브리엘리노 트레일을 따라 로열고지 입구까지 9.5마일, 6시간 코스를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주했다.

NE 동창회 장학생 모집 - 신청마감 5월25일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이강원·**사진**)는 올해도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12학년생, 대학생,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장학생 선정기준은 학교성적, 추천서, 그리고 재정상태 등이며 추천서는 타 기관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탈락되고 반드시 수신인이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로 되어야 한다. 또한 접수일도 고려될 예정이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서는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snuaane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보내면 되며 신청마감은 5월 25일이다.
장학금 관련 문의는 snuaane@gmail.com, 장학위원장 이영인 youngchunglee@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시카고 볼룸댄스 동호회

"댄스로 스트레스를 날리세요 "

올해 5 월에 결성되어 활동중인 시카고 동문회의 볼룸댄스 동호회 ("A Walk In The Clouds" Dance Team)는 현재 총 8 쌍의 회원으로 구성된 댄스 동호회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쉬고 있지만 매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시간 (7시-9시)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일리노이 Wheeling 소재 시카고 문화회관이며, 59학번부터 88학번까지 모든 회원이 동문들로 이루어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선후배간에 끈끈한 정을 나눌수 있는 좋은 모임이다.

본 동호회가 추구하는 어메리칸 스타일의 댄스는 우아하고 품위있는 볼룸댄스로서 부부간의 화합과 애정을 더욱 성숙시키는데 최고의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본회의 강사 황찬주 동문 (84)은 말했다. 현재 미국생활문화에서 필수적인 왈츠를 시작으로, 스윙, 폭스트로트, 탱고외에도 차차차, 룸바 등의 라틴 댄스까지 총 6가지 장르들이 2년의 코스로 준비되어 있다.
12 월에는 모든 동문을 초대하는 연말 오픈 댄스파티를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동문들의 관심을 부탁한다.

시, 그리고 쉼

어둠

손명세
(공대 60)

질병처럼 찾아왔다
고통은 비처럼 내리고
잎새는 폭풍 속에서 떨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소리, 중력 속에 무게없이 흩어져도

빛은 젖은 옷을 입고라도
틈 찾아서 온다

감사의 뜻 모아 '의료용 마스크' 전달

<KN-95>

워싱턴 D.C. 동문들과 1만5천달러 기금 조성
뉴욕시 의료진과 VA이노바 의료단체에 기부

워싱턴 D.C. 지부(회장: 정평희·**사진**)는 뉴욕에서 COVID-19 환자들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기본적인 의료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을 모아 4월 두번째 주에 워싱턴 D. C, 메릴랜드, 버지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동문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모두가 다 어려울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금운동이 시작된지 불과 5일 이내에 75명의 동문들이 무려 $15,000 동문회 지부의 $3,500 매칭펀드 포함)의 성금을 모으는 기적같은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한 동창회 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훌륭한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면 마땅히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의 발로가 자연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의료진을 도움으로써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자는 운동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한다.
조용히 시작된 모금운동의 소식을 들은 지역 기업 Han San, Inc. 도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에 적극 동참하여 적지않은 액수를 쾌히 기부하였다. 일년 내내 써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쌓아놓은 화장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작은 배려와 사랑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끄는 선순환의 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다.

이수연 동문이 기부할 마스크를 선보이고 있다.

이 지역 서동창회 임원진은 애초에 동문들로부터 $2,500이 모금되면 동창회 기금 $2,500을 매칭하여 뉴욕의 한 병원에 1,250장의 마스크를 지원할 목표를 가지고 모금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모금 기간은 일주일로 제한하였는데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75명의 동문들로부터 애초 목표액의 4배도 넘는 액수를 모아 서울대 동창회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임원들은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과 동창회에서 매칭한 기금 중에서 $10,000은 상황이 심각한 뉴욕지역의 의료진들을 위해 뉴욕시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Donation Portal에 의료용 마스크 2,000장 정도를 기부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000은 버지니아주의 Inova Hospital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너무 당연시 여기며 누리던 작고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들이었는지를 가슴이 아파지도록 느끼게 된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고난도 생각하기에 따라 축복이기도 한 것이다. 부활절 주일에 알려진 이 지역 서울대 동창회에서 벌어진 작은 마음들이 만들어낸 훈훈한 소식은 굳은 마음에 잔잔한 봄비 같은 설렘을 준다.
이 봄비가 아직 암담하게 느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기는 진짜 기적을 퍼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사=문항식 (농대 81)>

종신이사 추대

하기환
(공대 66)

하기환 종신이사는 66년 서울 공대 전기공학 학사를 졸업 후 위스콘신대 전기공학 석사, U.C.L.A. 전기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 부동산 관리회사 대표 겸 한남체인 대표로 활동 중이다. 한남체인은 연매출 1 억 달러 이상 한국 1 차 산업의 미주지역 수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며 경제계 및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LA중앙은행 창립이사, LA새한은행 창립이사, 휴즈 에어 크레프트 EDD Division 수석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인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 이사,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현 이사)을 맡아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 외에도 남가주 한인 경제 단체장 협의회장, LA. 19분야 한인 경제 단체 협의회 총회장으로서 한인 사회를 위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미 주류 사회에 한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 기구를 통하여 한인 전체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LA. 한인회 회장, 노인센터 이사장,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총회장, 민족화해협력(민화협) LA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역임했다.

박인현 동문, 예일 의대 종신교수 임명

<농생물학과 94>

줄기세포연구 업적

박인현(농생물학과 94·**사진**) 예일대 의대 줄기세포연구소 교수가 종신교수로 임명됐다. 최근 대학은 박 교수가 하버드 의대 박사후 연구 과정 중 여러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역분화줄기세포를 수립하고, 이를 이용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세포 모델을 확립한 연구가 네이쳐, 셀 등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된 것과 예일대 의대 줄기세포연구소 조교수 임명 후 뇌발달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업적 등을 토대로 올해 4월부터 종신직 교수로 임명한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지난 1994년 서울대 학사, 1999년 동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2005년 일리노이주 어바나-샴페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9년부터 예일대 의대 줄기세포연구소에서 조교수로 일해 왔다.

현재 박 교수는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인간 뇌발달 장애 관련 연구가 학계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학교와 학술대회에 주요 연사로 초빙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 1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과 격려를 준 아내와 아들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으며 함께 연구를 진행해 온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고/ (고) **박종식 동문**

박종식(의대52년 졸업) 동문이 향년 만 91로 지난 3월 18일 자택에서 소천하셨다.
1952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종군, 휴전후 군복무를 끝내고 도미, 동부에서 정형외과 수련과정을 마치고 Lima ,Ohio에서 Dr.McBride그룹에 합류하여 인술을 베풀었다.
1990년대 초 은퇴 후 Laguna Niguel, California에 정착한 후 30년간 중국, 한국땅에 기독교선교사업에 기여했다. 성경에 바탕을 둔 경제적인 면의 올바른 기독교인의 생활을 알리기 위해 활동했고 부인 최영애(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스피드 빙상선수)와 슬하에 Julia, John, Edie 2남1녀와 손자손녀를 두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삶과 에세이 /

봄은 왔는데…

김동근(공대 60)

춘망사 4수 (春望詞 四首)

작가: 설도 (薛濤)

花開不同賞, 花落不同悲。欲問相思處, 花開花落時。
화개부동상, 화락부동비。욕문상사처, 화개화락시。
攬草結同心, 將以遺知音。春愁正斷 绝, 春鳥復哀吟。
람초결동심, 장이유지음。춘추정단절, 춘초부애음。
風花日將老, 佳期猶渺渺。不結同心人, 空結同心草。
풍화일장로, 가기유묘묘。불결동심인, 공결동심초。
那堪花滿枝, 翻作兩相思。玉箸垂朝鏡, 春風知不知。
나감화만지, 번작양상사。옥저수조경, 춘풍치부지。

손을 박박 문질러 닦으라 하고, 발은 꽁꽁 묶었다.
65세 이상은 집에서 꼼짝말라 하고, 산과 바다와 들판은 모두 막혔다.
이제 세상의 역사가 BC(예수 이전)와 AD(예수 이후)로 나누어지던 시대에서 BC(코로나이전)와 AC(코로나 이후)로 나뉜다고 한다.
등에 봇짐지고, 막대기 들고, 삿갓쓰고 25년간 미국 대륙을 주류하던 서울대 남가주 산악반 멤버들. 집에서 뒹굳다. 한번 등정에 나서면 평균10마일을 험준한 산길, 물길, 바위길로 누비던 '산꾼'들. 무료한 심신을 손가락 운동으로 달랜다. 카톡에서 한시로 이 험란한 시대를 위로하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노래해 본다 –
"봄이 왔는데 봄같지가 않다"
멤버들이 고른 한시들이 카톡으로 오가고, 멤버들 마음을 울리는 한시들 중에 '동심초'의 원문이 있다. 동심초는 가곡으로 잘 알려졌지만, 그 원래 가사가 위쪽의 한시 '춘망사' - 봄을 기다리는 글, 총 4수중에 제3수이다.
춘망사 4수는 중국 당나라의 기녀였던 설도가 지은 시이다.

그 중 제3수.

風花日將老 , 佳期猶渺渺。不結同心人 , 空結同心草。
풍화일장로 가기유묘묘 불결동심인 공결동심초

동심초라는 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같은 마음을 엮은 '마음의 꽃'이 동심초이다. 이 구절은 여러 사람의 번역이 있다.

'꽃잎은 하욤업시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서로서로 맘과 맘 맺지 못하고 얽나니 풀잎사귀 쓸데잇는고' (1930년 번역)

이들 중에서도 김소월 시인의 스승이었던 김억 시인의 번역이 가슴에 스며든다.

해마다 봄이면 남가주를 찾아와 온산을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머스타드 꽃물결. 코로나19로 꽃구경 나들이도 줄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닢만 맺으라는고'

이 가사에 작곡가 김성태가 곡조를 붙인 것이 가곡 '동심초'이다. 성악가들의 노래도 좋고 가수 권혜경의 노래도 쓸쓸하다.
미국땅에 봄은 왔건만 봄이 아니다. 산과 들과 바다는 찾아주는 주인들을 잃고 망망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다. 서울대 남가주 산악반원들은 님을 그린다. 이맘때쯤 산 길에서 얼굴을 돌리며 수줍게 피운 꽃,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소리치며 손짓하던 꽃들, 나무들, 그 사이로 어루만지듯, 속삭이듯 지나던 바람들, 거품으로 깔깔대며 달려들던 파도들, 푸른 하늘에 맘대로 흘러 다니던 구름들...모두들 그 자리에 있겠지. 그들과 맘과 맘을 잇지 못하고, 만날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코로나에서 살아남았다고 영원히 살랴?
사는 날 동안이라도 만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텐데 – 꽁꽁 묶였다. 2020년 3월 봄에. 봄이 왔건만 봄이 아니다.

'설도'의 시 '봄을 기다리며'의 첫 수를 옮겨본다.

꽃 피어도 함께 즐길 수 없고 꽃이 져도 함께 슬퍼 못하네
묻노니 그대 어디 계신가 꽃피고 또 지는 이 시절에

▼사진 아래: 중부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알프스 빅파인 커튼우드 패스를 넘는 서울대 남가주 산악반

/ 동문문단 /

그리운 일상 I II III

이희만
(간호 70·편집고문)

그리운 일상 I

몸집 그리 살찌게 키우다가는
천년을 살아낼 수 없단다
수십만년전 사라진 공룡 보라

동굴 속 야생동물까지 먹어대다가는
남아나는 생명들이 없단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어가는 지구촌 보라

장례식도 제대로 치루지 못한 채
갑작스레 비인간적으로 이어진 줄 죽음에
중국 이태리 스페인 영국 아메리카...
오대륙 가슴 치며 통곡 한다

빌딩 철문이 굳게 잠기고
거리 거리 텅텅 비워지고
식료품 사재기 줄 이어지고
사람 자취 끊어진 길 따라
매화 개나리 목련 시리게 피어난다

세월따라 불어난 체중 달아본다
욕심과 교만 덜어내리라
집착과 아집 과감하게 줄여보리라
하루하루 줄어가는 육신의 집
소박한 목숨의 무게 만을
한 줌 체중계 올려놓고 싶다

남은 수면 털어내고
얇은 면 잠옷 걸친 채
새벽이면 재어보는 삶의 수치

기름진 육신 조금씩 덜어내고
고결한 영혼의 무게로만
오롯이 남는 날 꿈꾸며
정녕, 불운에 빚진 심정 가실길 없다

그리운 일상 II

견고한 껍질 등에 업은 달팽이처럼
사람들은 굽은 등에 제 짐 지고
저마다 지붕 그늘 밑으로 숨어든다

길모퉁이 마다 심겨진 꽃나무들은
두 팔 흐드러지게 열어제치고
쏟아지는 햇살 폭포에 아랑곳 없다
인간은 마침내 숙주로만 존재하다
속수무책 이렇게 무너지고야 마는가
현미경 통해서야 보인다는 미물 위력에
세상 온통 뒤죽박죽 쑥대밭 되다

그 빛나던 업적은
그 높았던 기개는
그 끝없던 소망은 찾을 길 없어
바이러스 요구 대상인
숙주로만 존재 의미는 마침표 찍는다
위대한 너의 꿈 너의 소망 어디로 갔나
총총하던 그 눈빛 정다운 그 이름
지금 어느 은하에서 서성이나

깊은 심연 속 문득,
거대한 분노의 나무 치솟아 오른다
인간 서사의 마지막
삶의 무의미성을 떠올리며

그리운 일상 III

유기체이기에 벗어날 수 없던
소멸 향한 불안과 공포
각자 뒤집어 쓴 마스크 통해
태양아래 일제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죽음은 계산되지 않는 두려움으로
우리 주변에 서성인다
문명의 방어벽 무장해제 시키고
침입한 바이러스는
사람 이성 마비시키며
검은 마스크 뒤로 하루를 밀어넣는다

어쩌면 우리 모두 영생 위해
코로나 바다를 넘어야 할 것인데
크루즈 선도 정박할 부두도 없어
하염없이 수평선만 바라본다

이 봄날 센트럴 팍엔
수만송이로 터진 목련 뒤로
비상 진료 텐트 하얗게 세워졌다

영생에 대한 불구 의지도
영 맥 못 쓰는 듯 하다
작고 원시적인 변신에 능한
바이러스로 인해

덧없는 희생 이쯤 접고
시공 나누는 공생관계로 들어가야 하려나
인류는

■**시인약력**: United Poets Laureate International Member / 한국문인협회/ 여성 문학인 회원 / 미동부문협 초대 사무총장/ 부회장 역임/ 전 한국학교교장/시집 <물의 은유>외, 편저 다수

장소현 (미대 65)

/ 미술 읽기 /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의 미래

세상이 온통 뒤숭숭하다. 봄은 분명 왔는데 도무지 봄 같지 않은 나날이다. 이처럼 수상한 시절에 화가가, 시인이,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할 일이 있기나 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쓸쓸해진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술계에도 이런 저런 변화가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바깥나들이가 금지되는 바람에,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유명 연주회나 오페라 공연을 집안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미술관에 갈 필요 없이 온라인을 타고 미술 작품이 집안으로 찾아오도록 한 것이다. 그런 전시회를 '무관객 전시회'라고 부른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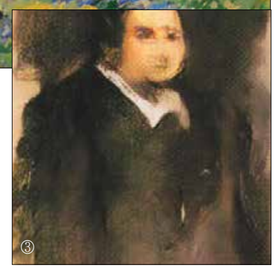
물론 비상시국을 슬기롭게 넘기려는 임시방편이겠지만, 전염병이 잡힌 뒤에도 이런 편리함이 버릇이 되어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아예 찾지 않게 되는 건 아닐지 은근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미술작품의 중요한 요소인 크기가 주는 느낌이나 질감 등을 영상으로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까, 연주회의 싱그러운 생동감을 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든다.

그렇지 않아도, 첨단과학 기술이 이미 예술 깊숙이 들어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판인데, 작품의 감상방법이나 유통구조마저 변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첨단기술이 예술 영역으로 넘어 들어오는 현상은 이미 각 분야에 걸쳐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자책 때문에 종이책이 사라질 것이다'하는 식의 낭만적(?) 걱정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글을 쓰고, 요리도 척척 해낸다. 드디어는 인공지능 시인도 등장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독일의 로봇 목사를 비롯해 중국의 로봇 스님, 미국의 유대교 로봇 랍비까지 등장했다니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 영역을 다루는 보수적인 종교에까지 첨단기술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니,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미술 분야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의 주도로 개발된 인공지능 화가가 렘브란트처럼 초상화를 그리고, 반 고흐의 화풍으로 작품을 창조해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 네덜란드의 인공지능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한 '넥스트 렘브란트(Next Rembrandt)' 프로젝트, 구글이 개발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 시스템 '딥드림(Deep Dream)' 등이 유명하다.

그런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들이 꽤 비싼 값으로 팔리며, 화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딥드림이 그린 작품은 지난 2016년 경매에서 총 29점의 작품이 9만7천 달러에 판매되었다, 이어서 2018년 뉴욕 크리스티경매에서는 경매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그림



①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린 인공지능의 작품 ②인공지능이 세잔느 풍으로 그린 작품 ③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

인공지능 화가, 유명작가 화풍으로 작품 창조
최대 43만 달러 낙찰, 앤디 워폴 작품가 뛰어넘어

"창의성은 인간만 가진 유일한 능력" 찬반 엇갈려
예술의 존재이유 등 본질은 인간에게 달려있어

이 경매에 나와, 고가에 낙찰되는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가 43만2000달러에 낙찰되었는데, 이는 놀랍게도 애초 1만달러 수준으로 잡았던 예상 낙찰가를 무려 40배나 넘어선 가격이었다. 이날 경매에는 앤디 워홀의 작품도 출품되어 7만5000달러에 낙찰됐다. 그러니까, 인기 높은 팝아트 거장의 작품보다 인공지능 작품이 6배나 높게 시장에서 평가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의 그림이 높은 값에 팔린 것은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미술경매 시장에서 인공지능의 창작품이 판매된 이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 예술이 새로운 투자와 소장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기술이 향상된다면, 머지않아 기존의 작품보다 더 뛰어난 창작물을 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자, 저작권 문제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든 경우 저작권은 당연히 창작자에게 가겠지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게 된다면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동양화를 그리는 인공지능도 등장했다고 한다. "동양화는 서양화와 다르게 '여백'을 중시하기 때문에, 서양화를 그리도록 개발된 해외의 인공지능은 동양화를 그리지 못한다. 이에 동양화 그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술 창작품 경연대회인 '로보아트(Roboart)'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경진대회는 혁신적 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열리는데, 대회 주최자는 '인공지능이 인간 예술가가 더 과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사람과 같은 자의식을 갖는 단계로 발전한다면, 인류와 기계가 생존을 건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사람들은 '인간 화가'가 그린 작품과 인공지능이 그린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미국 뉴저지 럿거스(Rutgers)대학의 '예술과 인공지능연구소(The Ar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가 실시한 실험 결과보고서가 매우 흥미롭다. 아메드 엘가멜 소장의 결론에 따르면, 이들을 구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예술과 인공지능연구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일종인 '창조적 적대 신경망(Cre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해, 기존의 예술 스타일과 미학을 학습한 후 직접 '예술작품'을 생성하는 AICAN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CAN은 기존의 인공지능 화가와 달리, 미술 사조나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화가와 유사한 미술 창작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한 프로그램이다. 연구소는 유명한 현대미술 박람회인 아트 바젤(Arts Basel)에서 AICAN이 제작한 작품과 인간이 완성한 예술 작품을 나란히 전시하고, 참가자들에게 어느 것이 기계가 그린 것이고 어느 것이 인간이 그린 것인지 맞춰보게 했는데, 그 결과 인공지능 작품을 인간이 그린 걸로 추측한 경우가 53%나 됐다고 한다. 인간 예술가의 작품을 인공지능이 만든 걸로 오인한 경우도 38%였고, 인공지능 작품이 인간 예술가의 작품보다 높은 평점(호감도)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연구소는 인공지능이 아직 걸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존 작가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창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미술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완성도 높은 창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창의성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 예술과 창의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피카소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한다. "컴퓨터는 쓸모없다. 대답만 할 뿐이다" 결국 이 문제는 바꿔 말하면, 창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니까, 요점은 창의력이 인간만이 가진 능력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 같다. 어떤 이는 감정이 없는 기계는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수단일 뿐이고, 창의력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므로 예술은 없어질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계가 여러 가지 인간의 일을 빼앗아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인간이 해야 할 일로 남는 것은 결국 예술일 거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반면에 첨단기술이 지금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 기계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바둑의 알파고가 이미 인간 이상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예술이 불러올 미래가 긍정적일지,

구글 딥드림의 최고가 8,000달러에 낙찰된 작품 <사진출처=월스트리트저널>

부정적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쨌거나, 첨단기술로 인해서 예술의 모양이나 존재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만큼, 예술가들이 그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거나 반발해야 하는가가 당장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회오리에서 과연 예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한다 해도 엄청나게 달라진 몰골이 될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까?

이 질문은 곧 예술의 존재 이유, 존재방식 같은 본질적 물음이 되겠다. 문명의 큰 변혁기를 살다보니 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다.

박재은 (미대 63)

/ 미술 이야기 /

Classic의 정의

클래식(Classic)이 주는 뉘앙스는 고전, 또는 옛 것의 뉘앙스도 있지만 품위가있는 것, 고상한 것, 예술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용어로는 형식에 걸러낸 가치있고 예술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엄격한 형식에걸러낸 좋은 시와 그렇지 못한 졸렬한 시를 구별할 수있다. 예술가는 인간의 sentimentality를 주어진 예술언어(시인이면 언어, 음악가이면 음정, 박자 미술가이면 색채, 형태) 등을 재료를 써서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는 기술자이다.

예술가의 교육은 의술 정신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의술 언어를 구사해 형식에 길러내는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이 더욱 중요하다.

희랍인들은 예술 정의를 techique라 했고 동양에서도 기술을 중요시했다. 마치 성악가의 훈련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게하는 훈련이 첫번째로 중요함과 같다.

미술가가 되기위한 훈련은 우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모방하는 훈련에서 시작된다. 동양 화가의 수련은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와 산수 풍경의 표현에 쓰이는 선 농담, 준법(touch) 등의 조형 언어를 구사 하는 훈련에서 시작되고, 서양 화가의 훈련은 인체의 proportion, 인체가 갖고있는 신비한 색채를 차고 따뜻한 색채의 조화로운 조형언어 구사술로 표현 해 낼수 있는 훈련에서 시작된다. 마치 현악기 주자의 훈련이 음색을 내는 훈련과 같다.

선생에 따라 인체의 색채 해석이 다르고, 화가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자연의 해조를 이해하는 지적 수준과, 시대정신에 따라 인체 해석이 다르다. 렘브란트의 인체해석, 세잔느 보나르, 르느와르의 인체해석이 다르다. 인체를 이해하고나면 색채를 이해하는 범위와 깊이가 더 심오하고 넓어진다.

내용을 전달하기위한 교통 수단인 형식은, 인상파 입체파를 거쳐 추상표현파에 와서 형사과 내용의 완성을 본 고도로 발전한 결과, 현대는 회화 언어 중의 하나인 공간만 가지고도 그림을 만들어 낼 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색채도 인체가 갖는 색채해석(chemistry of color, 찬색 더운색의 상호보완, 효소작용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있는 기술)의 훈련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어야 알찬 내용의 가치로운 작품이 될 수 있다.

몇 해전에 폴록과 그 부인 크라이스트 의 유작전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미술사의 발전사의 모든 스타일, 즉 렘브란트적 사실주의로 부터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를 거치고 추상 표현주의의 다다름을 보았다. 고르키도 세잔느와 피카소의 거치고 추상 표현주의 그림을 만들었다.

미술사는 1950-60년대께,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에 와서 형식과 내용의 종합적인완성을 보아 마치, 음악 이 바하, 베토벤에서 정점에 달했 듯 형식과 내용의 정점에 달했다. 그 후 1970년대쯤 라우센버그 엔디 워홀 등이 시도했던, 코카콜라 병, 수프깡통 등 일상에서 보는 오브제를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팝 아트, 스텔라 등이 시도 했던 커다란 원 이나 직선들, 단순한 시각적인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만들었던 옵아트, 듀상 등이 시도했던 변기통을 전시장에 전시해놓고 샘이라고 명제를 부치는 개념 미술들이 나왔지만, 이들은 미술사의 커다란 강둑 밖에서 잠깐, 어떤 신선한 바람을 넣어 주는 아이디어이고 콘셉이지만 금새 포말처럼 사라지는 것이며 그 자체는 심오한 예술성은 없다.

지금 미국 미술은 렘브란트적 사실주의,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추상표현파 등 미술사의 모든 화파가 병존하고 있는 건강한 미술 풍토이다. 음악이 음정 박자들 음악 언어가 모여 아름다운 음악이 되듯 어떤 화풍으로 만들어졌던, 그 작품의 평가는 회화 언어인 색채, 공간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졌는가에 있다. 오늘도 200년전 바하 베토벤의 음악은 세계각처에서 날마다 연주되고, 그 어떤 곡도 똑같은 연주일 수 없다고 어느 피아니스트가 말했다.

서윤석(의대 62)

/ 삶과 생각 /

전쟁과 평화

나는 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인 전쟁과 평화(영문판)를 세번째로 다시 읽었다. 의예과 때 처음 한글판을 읽었다. 다소 지루하고 복잡한 이름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났었지만 이 작품은 다시 읽어보게 되는 매력이 있고 읽을 때마다 색다른 느낌을 얻는다. 역시 명작이다. 모스코바를 불태워서 내주고 그 작전에 말려든 나폴래옹에게 패배를 안겨준 러시아 총사령관 쿠투죠브(Kutuzov)의 인내심과 전략은 누구나 알아야할 역사적 사실이다. 1,400페이지의 긴 소설이지만 작가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휴맨이즘이다. 고고한 귀족 안드레이, 박애주의자인 귀족이자 지성인 피에르(Pierre)라는 남자 주인공과 연약한 그러나 성장해가는 여인 나타쌰(Natasha)의 긴 시간에 걸친 파란만장한 인생의 행로가 묘사되어있고 그들이 나누게 된 사랑의 이야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코로나의 늪에 빠져서 집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이 소설을 10년 만에 또 읽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소설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썼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었다. 역시 시점과 주제가 질서정연하고 그 묘사가 아름답다. 소설이기보다는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폴래옹의 침공, 1812년대 당시의 전쟁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1950년 우리가 당했던 6.25전쟁과 현재 당면한 판데믹(PANDEMIC) 코로나 세균과의 전쟁이다. 전쟁은 될 수록 피해야 되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다른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 간다. 과연 우리 인류는 이 바이러스의 늪에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전쟁의 기억은 슬프다. 1950년 9.28수복시에 나는 만 여덟살 이었고 경기도 광주에 있었다. 미군 제2 보병사단이 국도를 따라 북진하는 것을 나는 형과 같이 길가에서 유엔기를 들고 환영했었다. 지프차와 얼굴에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미군들을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초콜렛을 던져주고 껌을 씹고 손을 흔들던 그 군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난다. 인민군 포로를 차 앞에 태우고 가던 그들, 또 먹을 것을 포로에게 주면서 데려가던 그 신사적인 장면이 생각난다. 영등포에서 걸어서 조치원을 거쳐 피난을 가서 충남 공주에서 숨어 살다가 두달 후 할 수 없이 우리 가족은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보름 동안 도보로 걸어 올라와 경기도 광주땅에 도착했었다. 무척 무더운 여름이었다. 우리가 걷던 길가에서는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우리를 쏠 수도 있으니까 보따리를 머리에 얹고 엎드렸다. 이렇게 도착한 경기도 광주 아버지 친구집에서 우리 식구가 둘로 나뉘었다. 부모님과 형제 일부는 영등포집으로 가고 형 둘과 나는 남았다. 유엔군이 들어왔을 때 나는 요즈음 처럼 한동안 머리를 깍지 않아서 무척이나 길었다. 손톱도 길고 옷도 빨아입은 기억이 없으니 내 꼴이 더럽고 고아 처럼 불쌍하게 보였을 것이다.
마침 추석 때인지라 동네집에 가서 고기국을 얻어먹던 생각이 난다. 그 고깃국 참 맛이 있었다. 그러다가 그날 밤 북진하던 미군들이 되돌아와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동네 한 마을로 밤에 피신시키고 산 속을 통하여 북으로 도주하는 인민군 패잔병이 있다면서 산을 향해서 기관총을 쏘던 생각이 난다. 그래도 형들이 쌀장사를 해서 내 방에

1950년 서울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형(서준석)과 미국병사

세균과의 전쟁 '팬데믹', 6.25 전쟁 떠올라
무너진 일상과 '불안' 넘은 '공포'에 슬픈 나날
물질 만능주의 벗어나 생명경외 사회풍토 절실

는 쌀이 한 포대가 있었다. 쌀, 쌀이 있으면 살았다. 그때가 생각나서 이번 코로나 사테에 대비해서 나는 여섯 달어치 식량으로 쌀 40파운드 두 포대를 사다 놓았다. 서양사람들은 휴지, 밀가루, 고기를 미리 사는데 나는 그런 것 보다는 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당시 피난 길거리에서 호박등 주인이 없는 농작물은 그냥 따서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모두가 좀도둑이 되는 것이었다.
승승장구하던 이 2사단 미군들은 북으로 평양을 지나 압록강까지 진군했다. 두 달 후 중공군의 참여로 많은 사상자를 낸 후 퇴각하고 있었다가 또 강원도 홍천등지에서 치열한 싸움으로 또 많이 희생되었다. 그 후 재충원을 받고 싸우고 있었던 사단이었다. 중공군 개입으로 계속되던 1-4후퇴에서는 비로서 여기 지평리에서 전세가 빠뀌게 된 것이었다. 프랑스 대대가 참여한 유명한 지평리 전투(1951년 2월13-16일)가 바로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다.
유엔군 폭격으로 수만명의 중공군이 죽고 다친 처참한 공산군의 패배가 기록된 전투였다. 당시 통역관으로 이 공병대에 들와서 복무하던 본인의 형 서준석(당시 서울고등학교 2학년)은 지평리 전투시에 실려나갔던 중공군의 시체 행렬이 현재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하여 뉴욕병원에서 실려나가는 시신들의 행렬과 흡사하다고 이야기 한다. 형은 찬송가 101장 '주 예수 같이 귀한 것은 없어라'를 전쟁중에 어려울 때마다 미군 병사들과 같이 영어로 불렀었다고 회고한다.
우리는 모두 2001년 911 테러 참사때에 뉴욕이 당했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그날 아침에 3,000명이 사망하고 한동안 모든 비행기가 취소되고 그해 가을 LA에서 준비되었던 마주 의대 학술대회도 참석자가 없어서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여행시에는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비록 3-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생활이 편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하고 풀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사태로 얼마나 우리가 속수무책인가를 알게 되었다. 혹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세균이 유출된 것은 아닐까?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손 씻기는 물론 아이들이 부활절이라고 찾아와도 밖에서 서 있으라고 하고 문도 안 열고 바라보다가 보내기도 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 6시부터 한시간 씨니어를 위한 식료품 구입시간이라고 해서 집에 식품이 바닥이 나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중으로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필요한 식료품을 사가지고 왔다.
크로락스(Clorax)세척제로 카트 손잡이도 씻고 셀프 지불기계 앞에서 계산하고 식료품을 차에 싣고 왔다. 집에 와서는 프라스틱 봉지 그 자체도 균이 묻어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비누로 씼었다.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가지고 갔던 신용카드, 지갑, 차고 갔던 시계, 열쇠를 좌외선(Ultraviolet)소독기계에 넣어서 5분간 소독했다. 이 기계는 지난 주에 아마존을 통하여 큰 딸아이가 보내준 것인데 아주 유용하다.
오늘은 다행히 식료품 상점에는 띄엄띄엄 시니어들이 마스크를 끼고 조심스럽게 식품을 구매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물건도 비싸기는 하지만 충분히 진열되어 있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어떤가 혹시 골프를 칠 수 있는 날씨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요즈음은 아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어제 하루에 코로나로 몇명이 사망했는가를 본다. 선배님 몇분을 전화를 드렸더니 무척 심리적으로 어려워 하신다. 누가 모금 운운하는데 이 사태에 무슨 말이냐고 걱정하신다. 우리가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 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신다.
며칠 전 뉴욕에서 양로원에 계시던 이운순 선배님은 코로나로 사망하셨다. 아직도 사망자가 하루에 몇 천명씩 매일 올라가니 어찌하랴. 4월 18일 미국에서 3만8천 명이 더 된다니 기가 막힌다. 슬픈 나날이 계속되는 것이다.

2020년 봄에 우리는 참 슬프다. 늙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지난 1월1일 경자년에는 쥐의 해라고 모두들 부자가 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실업자가 속출하고 생계가 어려움의 연속이다. 개인적으로 3주 전에 이노바(Inova)대학병원 중환자실(ICU)에서 갑자기 떠난 사랑하는 처남의 화장된 시신을 장례도 못 치루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일도 겹쳐서 더욱 힘들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65퍼센트가 남자이고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라니 우리 미주 동문들이 거의 모두가 그런 그룹에 해당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 전쟁은 끝 날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평화가 또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천연두, 페스트, 매독, 결핵, 소아마비, 에이즈(HIV), 간염 등 모든 어려운 신종 질병을 하나하나 정복해 왔다. 앞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위정자들은 의학자들이 하는 연구에 힘을 심어주어야 한다. 의료인들이 입지가 높아져야만 안전하다. 금전 만능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경외하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 물자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또 오는 무서운 세균과의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고 인류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의대 동창회보 시계탑 편집장>

이영묵(공대 59)

/ 나의 생각 /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무섭다

작년 겨울 나는 2020형 세단으로 자동차를 바꿨다. 쓰던 차가 2 만 마일 정도 달린 거의 새 차이지만 차 나이가 4년이 되어서이다. 주위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했고 심지어 누구는 미쳤다고 까지 했다. 그러나 2020형을 보니 앞이나 뒤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경고음이 울리고 또 급정거까지 해 준다. 또 차선을 잘못 바꾸면 핸들에 신호가 오는 등 새로운 안전장치로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다. 사실 가끔 브레이크를 밟은 다는 것이 엑셀레이터를 밟아 급발진으로 인명사고의 기사를 종종 읽었다. 그래서 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차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 차를 산 것이 아니고 3 년 리스(Lease)를 했다. 3 년 후에 어떤 차가 나올까? 아마도 차가 혼자 목적지까지 가는 소위 운전수 없는 차가 나오고 휘발유를 쓰는 차보다 수소차가 대부분일지도 모른다. 최소한 나는 일자 파킹 실력이 형편없는데 리모트 콘트롤로 주차시키는 차는 나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2020형 차도 3 년 후면 또 구식 차가 될 터인데 왜 사나? 리스를 하고 3 년 후에 성능이 더 좋아진 새 차를 또 리스하지, 하면서 리스를 했다는 말이다.
차 리스 계약에 서명을 하고 새 차를 인수하여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당시 생각했던 것이 새삼스럽다.

"이제 우리는 인간에서 신의 경지로 들어가는 중이야, 신과 인간의 차이는 무어야 그야 신은 불멸이고 인간은 죽는 것이지. 무엇으로 대부분 죽지? 그야 대부분 암, 심장병, 고혈압인가? 그리면 언젠가 인간의 피 속에 특수 세포를 넣어 암 세포가 나타나면 잡아먹게 하고, 심장은 기계로 만들어 바꾸어 달고, 혈관은 아예 특수 플라스틱으로 바꿔 버리는 정도의 기술로 반인간 반기계가 되어 신의 경지 즉 불멸의 경지에 인간들이 살겠지"

그러한 생각에 젖어있는 나에게 코로나 19 이란 천지개벽이랄까 벼락이 떨어졌다. 인간들에게 인간은 불멸의 신의 경지가 아니라 노화, 질병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드려야 하는 생명체이자 동물이란 것을 다시 한 번 깨달고 또 상기하라고 벼락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그러다가 코로나 19가 무서워서 방에 쳐박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두려움을 느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COVID-19 정보 사인판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삶의 변화 뿐 아니라
'바이러스 정복'의 인간의 자만에서 오는
'반인반신'의 경지의 도전이 진짜 두려움

끼기 시작 했다. 지금 온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온 정열을 쏟고 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코로나19를 정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코로나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현재의 인류와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살도록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응하며 살라고 하며 인류를 강제로 끌고 갈 것 같다.

좀 더 부연하자면 근세에 역사상 인류는 몇 번의 우리 생활과 사고의 변혁을 가져온 사건을 만났었다. 증기 기관차, 비행기, 원자탄, 인터냇, 셀폰 등 말이다. 셀폰 하나만 두고 생각해 보자. 자식들이 부모를 오래간 만에 만난다 해도 단 몇 분 인사를 나눈 후에는 옆 소파에 앉아있는 부모를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곧 나 홀로 셀폰 만 들려다 보는 세상이 되리라고 단 10 년 20 년 전만 해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보다도 더한 생활과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고 예견된다는 말이다. 그리면서 그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을 수도 있고 재앙일수도 있다. 마치 핵연료로 발전소도 돌리고 배도 움직이게 하지만 끔직한 원자탄도 만들지 않는가?.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코로나 19 정복 과정에서 우리 인류의 정신적 즉 의식구조, 윤리, 도덕, 습관, 사회 질서 등을 받아드리며 소화 해 가며 적응해 가던 속도를 훨씬 뛰어 넘는 변화의 세상이 될 것이며, 이 변화를 인류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고 이를 받아드리고 적응하라고 요구할 것 같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복이 끝나면 곧바로 혼란스러운 세상 즉 경제적인 대란, 세계화가 아니라 각 나라의 독자적인 생존 등은 물론 스포츠, 예술 공연, 사회적 모임은 바랄 수 없는 미래가 전개될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 간에 악수도 안하는 새로운 사회 풍토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아주 짧은 1-2 년 사이에 닥쳐올 사태이며 모두 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다 알고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움은 곧 있을 1-2년의 변화에 대한 그러한 사태보다, 그 이후 인간이 정신적으로 적용하고 준비가 되기도 전에 다시 신의 경지인 반인간 반신의 경지에 들어가겠다고 다시 도전을 하려는 것에 있다. 더구나 인간에 이러한 도전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복의 학습효과라는 자만 속에서 도전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셀폰 출현에서 변화에 빠른 속도를 보았듯이 이런 신의경지의 도전은 나 같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채 되기도 전인 즉 10년 20 년 안에 일어날 것 같다.

나는 두렵다. 내가 살아오면서 여지껏 생각해온 삶의 가치, 삶의 기쁨이 어찌 될 것인가? 나는 여지껏 값없이 생각했던 평범(平凡), 일상(日常), 대중(大衆)이란 세 단어의 소중함을 이제야 느끼며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도 또한 나의 숙명인가 하고 있다, 진정 과거가 그리워진다.

정홍택 (상대 61)

/ 짧은 글 /

'코로나' 삼형제 이야기

"코로나여 영원하라"
"미친놈 아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코로나'를 찬양해?"
"아녜요, 아저씨. '코로나'라고 다 같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뭐야? 그럼 다른 '코로나'라도 있다는거야?"
"바로 그거예요. '코로나'는 성(姓)이에요. 이름 앞에 오는姓 . '코로나'라는 성(姓)을 가진 삼 형제가 있어요. 아기 돼지 삼 형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설명해봐."
"제일 큰 형(兄)은 코로나 맥주, 둘째는 코로나 택시, 그리고 막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판데믹'이라고 불리는 망나니지요."
"그럼, 하나 하나 차례대로 얘기나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는 한 숨을 돌리며 이야기 할 기회를 얻었다. 아, 우선 '코로나'란 말의 어원(語源)을 찾아가는 게 순서겠다. 옛 라틴어에서 왔는데 뜻은 왕관(王冠)이란 뜻이야. 둥그런 테에 돌기같은 것이 나와 예쁘게 장식해 주지.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둥글둥글한 몸에 삐쭉삐쭉 돌기가 귀엽게 나있어. 이 앙징스런 놈이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사람들 코를 통해 폐로 들어가 허파를 석회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는구나. 이게 코로나 가문(家門)의 막내 동생이 하는 일이야.

맏형 '코로나 맥주'는 막내와는 달리 점잖고 정답지. '코로나 맥주'를 앞에 놓고보면 우선 투명한 병이 독특하지. 자기 속내를 다 들어내 보이는 허물없는 친구같다고나 할까? 그 속의 노란 액체가 바로 코로나의 마음이야. 병뚜껑을 열어 그라스(glass)에 따르지는 마시게. 연인에게 키스하듯 자네 입을 병입에 대고 마시는거야.

코로나 병을 비우고 나서 지긋히 바라보면, 유달리 긴 목이 눈에 들어올꺼야. 이럴때 내 머리를 스치는시 (詩)가 한 수 있어.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관이 향그러운 너는/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노천명의 사슴)
멋있지? 그러면 다시 한 병 더. 이번에는 시적(詩的)으로 마시는 방법을 말해주지. 라임이나 레몬 한 쪽을 각지게 잘라 병목에 꾸겨 넣어봐. 맥주가 병목을 통과할 때 즙과 어우러져, 자네 혀를 황홀경에 빠지게 할꺼야. 그래서 코로나 맥주 팬들은 잔(盞)대신 병(甁)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지.
그런데 글쎄, 이 코로나 맥주회사가 큰 실수를 했다네. 새로운 탄산수를 개발해 미국 매체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거야.
'코로나 곧 상륙합니다(Corona Coming Ashore Soon)' 그게 올 2월이었어. 코로나19 가 아시아, 유럽을 강타하고 미국에 상륙하려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있을 때란 말이야. 온 미국 국민들의 신경이 곤두서서 공포에 떨고 있었지. 이 광고때문에 코로나 맥주는 '바이러스의 앞잡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지뭐야. 광고가 나가자, SNS 매체들에 불이 날 정도로 비난 글이 쏟아졌어. "앞으로 코로나 맥주를 마시나 봐라" "코로나 맥주 마시면, 코로나 병에 걸리나?". 등등 일일히 열거할 수도 없어. CNN 비즈니스는 지난 달 29일 '코로나 맥주에게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악의 타이밍에 찾아왔다'라고 했어.

그런 비난 속에서도 나는 굳굳하게 내 의리를 지켰어. 누가 뭐라든 나는 맥주하면 코로나를 마실꺼야. 코로나 맥주 맛이 변하지 않

듯이 내 마음도 항상 같을거야. 오늘 뉴스를 보니 멕시코의 코로나 맥주 공장이 당분간 휴업에 들어갔다고 하는군. 참!

이제는 둘째 형, 코로나 택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해. 1960 - 70년대를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면 코로나 택시를 안 타본 사람이 없을거야. 신진자동차가 일본의 도요타의 기술을 빌어 생산한 것이 바로 코로나 차(車)야. 대중화의 첫 걸음으로 코로나 택시가 거리에 등장했지.
이 즈음 코로나 택시와 관련해서 웃지못할 에피소드가 내게 일어난거야. 1968년에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어. 상과대학을 졸업한 나는 회사의 업무부에 소속되어 기자재의 수출입 업무 최전선에서 뛰었지. 우리 회사는 생산 기자재 100%를 미국에서 수입, 공장에서 조립한 후 전량 수출을 했어. 당시 한국에는 '반도체(Semi-conductor)'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때였지.
어느날 직속 상관인 업무부장이 나를 따로 부르더니 특별 임무를 부여했어. 새 커스트머의 시험적 오더(Trial Order)를 받았는데 납품기일을 맞추려면 오늘밤부터 공장을 3교대로 일주일간 돌려야 한다는거야. 원자재 칩(Chip)이 오늘 아침 비행기 편으로 도착한다는 텔렉스를 받았대. 즉시 공항에 가서 통관절차를 거쳐 오늘 꼭 공장에 가져와야 한대. 수 백명의 공원이 칩(Chip)아 없어 가동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대명령이래.
그 때 시간은 오후 1시경이었어. 통관 서류 준비를 마치고 나니 2시야. 급히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는데 그게 코로나 택시였어. 회사는 말죽거리 화양동에 있었고 김포공항엘 가야 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야. 가는 도중 등촌동을 지나야 해. 거기는 온통 논과 밭, 그 사이로 직선 도로가 길게 나 있었어. 등촌동 중간쯤에서 택시가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더니 그만 엔진이 죽어 버리는거야. 운전수가 나가 후드를 열고 뚝딱거리는데 시간은 짤깍짤깍 사정없이 달리고 가슴만 바작바작 타는거 있지. 얼마 후 운전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다른 택시를 타래. 촌길에 빈택시가 있겠어? 지나가는 차는 많았지만 모두 그림의 떡이지. 반대 쪽에서니 김포공항에서 나오는 빈 택시가 한 대 오는거야. 또 코로나 마크를 단 차야. 차 방향을 돌려 한창 신나게 달려가는데, 아, 그런데... 공항 건물이 저어기 보이는데 차 속도가 급히 떨어지며 덜컥 서지 않겠어? 또 운전수가 나가 후드를 열고무엇을 뚝딱거리는데 시계를 보니 4시야. 세관은 5시 정각에 끝나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 급히 문을 열고 공항 건물을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지. 뛰다보니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는거야. 택시 운전수가 택시값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다려서 돈을 지불하려면 또 5분 가량을 까먹게 되는데 그 5분은 황금과도 바꿀 수 없지.공장에서는 수 백명이 자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나와 운전수는 단거리 경주를 하듯 앞에서 뒤에서 달린거야. 별안간 뒤가 조용해 졌어. 운전수가 지쳐 포기했나봐. 아니면 쓰러졌거나. 아랑곳 없이 나는 오직 공항 건물만을 향해 달렸지. 5시 땡과 함께 나는 공항 보세 창고에서 칩 상자(chip box)를 가슴에 안고 나올 수 있었어. 택시 정류장에서 코로나는 그냥 보냈어. 대신 '코티나 택시'를 골라 탔지. 오면서 보니 길가에 고장난 코로나 택시는 보이지 않았어. 아마 견인차가 끌어갔겠지?
내 생전에 택시값을 떼어먹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생각해. 아직도그 코로나 택시 운전수에게 미안한 마음이야. 그 차 운전석 앞 백미러에 조그만 그림이 걸려 있었어.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과 함께 '오늘도 무사히' 라는 문구가 지금도 눈에 선한거야. '기사 아저씨. 죄송합니다. 부디 무사하소서.'

이제는 막내 동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야기 할 차례지? 막내에게는 미국이란 나라야말로 만만한 먹거리였던 것 같아. 인구는 많고, 우두머리는 으쓱대는 고집통이 거짓말장이, 그 휘하에는 옛 내시같은 간신들이 득실거리는 동화같은 나라야. 내시들의 기자회견은 우선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Leadership, Mr.President"로 시작되곤 하지. 이들을 보고 있느라면 내가 옛날 동화 '벌거벗은 임금'의 나라에 살고있나 의심하곤 해. 3월 1일에 공식적 바이러스 확진자가 단 한(1)명이었는데, 3월 말이 되니 200,000명으로 수직 상승을 했으니 역시 세계 최고의 리더쉽 덕분이겠지. 2020년 새해부터 아시아 유럽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토록 고생하고 있는데도, 이 양반은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 불시에 당한 거야. '숲속에 있을 때는 숲을 볼 수가 없다'는 옛 속담이 있지? 일단 숲을 빠져나와야 큰 그림이 보인다는 얘기야. 인류 역사상 역병이 돌아,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적이 여러번 있었어. 하지만 결국에는 과잉인구를 정상으로 돌리고 나서는 물러가곤 했지. 이번 코로나19도 예외는 아닐껄. 지구가 편안할 인구수가 되면 슬며시 사라질꺼야. 그러니 막내 동생 코로나19가 이유없이 그냥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뭔가 사람들이 지구를 못살게 굴어 몸살을 앓는게 아닐까? 오늘 중국 북경 하늘에 매연이 사라지고 청천 하늘이 보인대. 인도 봄베이의 어린이들이 밤에 밖에 나와 하늘의 별들을 센다는 뉴스도 들려. 반가운 소식 아냐? 밤낮으로 검은 연기를 뿜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자동차들의 통행이 현격히 줄어든 결과래.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의 정글을 수 많은 트랙터가 하루에도 몇 백 에이커씩 깔아뭉갰는데 지금은 조용해졌어. 아이들은 집에 오면 손을 씻고, 어른들은 두 번 생각하고 돈을 쓴대.
'총균쇠'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된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2016년 '나와 세계'라는 책을 또 썼지. 그 책에서, 우리 인류가 이런 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계속한다면 (2016년 기준), 40년후에는 지구의 모든 자원이 바닥 나고, 환경은 파괴되고, 인구는 70억으로 늘어나서, 종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내놨어.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지구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달라질거야. 따라서 인류 수명의 예측도 좀더 늘려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어. 그럼 안녕.

권오율 (상대 56)

/ 사회와 종교 /

한국은 왜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기나?

며칠 전, 세계적으로 독자가 오백만이나 되는 뉴욕타임스지는 한국의 한 사이비교회가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지라고 보도하였다. 1970년대에 짐 존스의 사이비교가 미국에서 있었던 뒤로 선진국에서는 없는데, 한국에서는 동란 후 지금까지 박태선 천부교, 김기순 아가동산, 문선명 통일교, 유병언 구원파교, 이만희 신천지교 등 굵직굵직한 사이비 교회가 생겨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이비교의 특징은 교주가 구세주(messiah)라는 것과 불치병을 고쳐주는 등의 신과같은 전능함이 있고, 사회의 모든 관례를 사탄의 짓에 불과하다고 힐책하고 자기만 믿으면 하느님께 간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속세를 저버리게 되니 자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사이비 교회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 그 종말을 가져온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더욱이 교육수준이 선진국에 못지않게 높은 한국에서 왜 사이비 교가 횡행할까? 그 원인은 한국 문화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유교문화가 지배한 사회라서 위계적인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권위를 존중하도록 양육을 받고 자란다. 우선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일상생활에서 먹고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학원에 가는 것, 대학, 전공 등 교육과정도 본인의 의사나 선택보다 부모가 정한 것을 따르게 한다. 또한 군사부일체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하고 타이르고,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니 학교교육은 자연 주입식이 된다. 대학에서도 주로 교수중심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 학생의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의사결정이나 선택의 기회가 별로 없다.

사회에 나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직이 쉽지 않은 문화에서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명령체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상사의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체계도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다른 민주국가에 비하여 권력이 대통령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 사회와 정치지도자들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당들이 정치강령에 따라 형성되지 않고 정당 대표에 따라 창당되고 소멸한다. 따라서 정당 대표의 권력이 강하고 당원은 정당 대표의 추종자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교육과정과 사회적 배경뿐 아니라 종교풍토가 사이비 종교나 교회가 쉽게 싹트게 되어 있다. 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한 기성 종교가 많다. 또한 복잡한 길거리에서 확성기로 전도활동을 하면서 그 소음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종교만 천당에 간다는 편협한 신앙심을 가진 교인들이 유독 한국에는 많다. 한국의 이런 종교적 풍토와 교육 및 문화적 배경에서 야심을 가진 교주는 자기가 구세주로서 신의 전능함이 있어 불치병도 치료하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하고, 자신은 법이나 사회질서 위에 있음을 포교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듣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데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번성하는 것 같다.

사이비종교는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한 요소이다.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편협하고 광신적인 종교가 교파간 종교간 갈등은 부추기는 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다하다. 유병언의 구원파 교회가 저지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처사가 사회윤리와 준법정신에 해를 끼친 일은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사회갈등과 윤리 및 준법정신의 저하는 사회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국민의 행복수준을 낮추게 된다. 이번 신천지 교파가 보여주듯이 속세를 초월한 교주의 교리와 전능함을 믿으면 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준다고 하는 설교만 믿고 병원에 가는 것을 회피하고 당국에 협조를 거부하는 데서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

사이비종교는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사이비종교를 통한 사회갈등이나 부정부패는 경제불확실성을 높이고, 사회신뢰의 하락은 거래비용을 높여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이 된다. 사이비종교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건은 해당국의 국가이미지 및 국가브랜드를 깊이 훼손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세계화시대에 각국은 수출증대와 더불어 타국의 관광객, 학생, 자본, 창의적인 두뇌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이미지나 국가브랜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브랜드가 그 나라의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사이비종교의 문화적인 요인들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또 사이비종교가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은 사회와 국가이미지에 깊이 각인되어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무엇보다 불법을 저질은 사이비종교단체를 일벌백계주의로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가정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는 의사결정의 기회를 주고 그 역량을 기르려는 고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면에 있어서도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하여 주입식 교육에서 개발교육으로 중점을 돌려야 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인 홍보와 증진이 필요하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기업이나 국가경제발전의 관건이 되는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재래의 상명하복의 구태의연한 기업경영전략을 탈피하고 해당 사원들에게 자율권을 높여주는 풍토 개선이 시급하다.

<캐나다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교 겸임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의 대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는 남구보건소 관계자들.

사이비교 특징, 교주가 전능한 구세주로 표현

부정한 재산 축적, 부패, 불법 행위 빈발

오랜 유교문화, 수직-권위적 사회문화 원인

교육,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종교문화 변해야

/ 이달의 사진 / **별들의 준비** | 김지영(사대 69)

별들은 마실 가기가 어려워요. 빛의 속도로 가도 이웃 별까지 4년 씩이나 걸린대요. 별들 사이에 이야기는 쌓여만 가고, 별빛조차 가끔씩 깜빡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자기들끼리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별빛 뜨락, 사람눈에 안 띄는 대낮에 만났다가, 어스름 별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진은 별들이 제자리로 떠날 준비를 하는 광경, 캘리포니아 파소 로블에서 훔쳐보았습니다.

<사진 파일이 필요하신 동문께서는 jkym@yahoo.com으로 연락주세요>

/ 관악춘추 /

굳이 알 필요 없는 것을 모르는 행복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것들이 마음의 영토를 속속 점령해가는 동안, 우리는 저항은 커녕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처럼 세상은 가십과 스캔들을 지극 정성으로 환대하고 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소식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그는 /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 실시간 이슈들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실력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수록 커진다. 그러나 행복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모를수록 커진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매일매일 측정하고 있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행복의 모든 지표가 나빠졌다. 스트레스가 증가했고, 삶의 만족도는 하락했으며, 일상의 기분은 불쾌함이 늘어났다.

2018년과 2019년의 행복 격차는 평일과 주말의 행복 격차만큼이나 컸다. 2019년의 행복 수준이 우리가 평일에 경험하는 행복이었다면, 2018년의 행복 수준은 우리가 주말에 경험하는 행복 수준이었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 마는 특히 2019년에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버닝 썬 스캔들로 인해 우리는 일부 연예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너무 많이 알게 됐다. 지난가을부터 시작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와 동생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친구 가족의 이름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싶은 검사들의 이름도 지나치게 많이 알게 되었다. 누가 누구의 라인인지, 그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좌천됐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정신적 고통과 관계의 갈등을 경험해야 했고,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비워놓아야 할 마음의 여백이 사라졌다.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왕성한 활동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서 있지 않고, 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앉아 있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마음도 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마음의 힘을 비축하는 행위다. 유일한 대화 주제가 가십과 스캔들뿐인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마음의 힘을 축적하기 위한 행위다.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알 가치가 없는 내용들을 폭로하는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담을 쌓아야 한다.

마음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대상이다. 자연만큼이나 지켜내야 할 대상이다. 마음은 결심 한 번으로 바뀌는 대상도 아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마음속 찌꺼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알 권리와 알 가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식함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하." 이 말을 자주 써야 한다. 소문에 느리고 스캔들에 더딘 삶이 좋은 삶이다.

이제 세상에 대해 위대한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실시간성에 집착할 때, 한 박자 늦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는 행위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접속하느라 분주한 것 같지만 실은 게으른 것이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단 한 발짝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나태다. 바쁨을 위한 바쁨일 뿐이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은 세상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이다.

<한국 서울대 동창회보 발췌>

/ 삶과 생각 /

외할아버지의 '올초 망태기'

김지영(사대 69)

외할아버지 올초 망태가 돌아왔다. 마이너 선생님 부인이 소포로 보내주셨다. 제임스 마이너, 54년 전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때 내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시골 집에 갔을 때 외할아버지가 선물한 그 망태기.

그때 그 순간 그 자리를 담아둔 세피아 빛 사진을 꺼내 본다. 당시 외할아버지 집 나무 마루, 마이너 선생님, 선생님 친 동생 넬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나. 맨 오른쪽의 마이너 선생님과 맨 왼쪽의 나만 살아있다. 당시 할아버지는 지금 내 나이였을 터이다. 사진 속에 그 망태기가 있다. 망태기는 옛 시골 사람들이 쓰던 백팩, '올초'는 아마도 풀로 엮었다는 뜻일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이 망태기를 손수 기른 왕골로 만드셨다. 여름 내내 질척거리던 할아버지 집 뒷간 뒤 후미진 곳에서 왕골이 자랐다. 세모꼴 왕골대는 어른 키만큼 자란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베어내서 껍질을 벗긴다. 껍데기는 말려서 돗자리를 만든다. 속살은 꼬아서 끈으로 쓴다. 그 끈을 엮어서 바랑으로 만든 것이 올초 망태기이다. 시골 사람들은 이런 망태기를 지고 장 나들이를 했다.

마이너 선생님은 공주 영명 고등학교에 선교사로 오셨다. 나는 영명학교 학생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매주 월요일 저녁, 같은 또래 학생들이 선생님 숙소에서 영어 공부를 했다. 영어 성경도 읽고, 영어 노래도 듣고.... 마음 속 봄 바람이 참 보드라운 때였다.

2019년 5월 옛 제자들이 마이너 선생님 부부를 공주로 모셨다. 마이너 선생님은 1972년 미국으로 돌아와 조지아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셨다. 여자 셋, 남자 하나, 네 명 남은 그때 학생들도 50여년 전 고딩 모습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 추억 여행 중 마이너 선생님 부인이 외할아버지 올초 망태기를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외할아버지가 만든 올초 망태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내 곁으로 돌아와 보물 대접을 받지만 다시 반 백 년이 지나면 이 망태기는 어디로 갈까? 망태기는 아직도 정정하다. 앞으로 한 오백 년은 거뜬할 듯. 그러나 망태기에 얽힌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존재의 이유도 없어질 터. 혹시 운이 좋아 어느 박물관에 걸린다 해도 박제된 먼 나라의 옛 물건일 뿐.

사람도 마찬가지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명이 다 했을 때가 아니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 사라질 때이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아직은 이생에서도 존재한다. 그들을 기억하는 마지막 외손자가 이 세상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아온 올초 망태기를 보니 옛 노래가 들린다. "그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세월이 많이 지났지 (Long time passing)." 공작새 꼬리로 심장을 쓸어내는 듯한 조앤 바에즈 의 목소리. 내가 아직 세상일을 모를 때(when I was innocent) 마이너 선생님 숙소에서 릴 테이프(Reel Tape)로 듣던 그 노래.

/ 문학 읽기 /

실존 (實存)

박영호(공대 65)

우리들은 현대사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고 있다.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배계급 (왕족,귀족,종교사제)이 정해 놓은 법칙, 율법, 윤리, 종교 속에서 인간들은 고난을 당하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 번거로운 법칙과 규범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탈출할수 있었던 것은, 많은 철학자, 소설가 같은 선열,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의 발전도 큰 역할을 했다.

그중에 실존주의를 뺄 수 없다. 우리가 읽은 까뮈의 이방인, 페스트, 카프카의 변신, 사르트르위 구토 등은 실존주의적인 소설들이다. 그러나 실존이라는 말은 매우 이해하기가 힘들고, 실존주의자 본인들도 그렇게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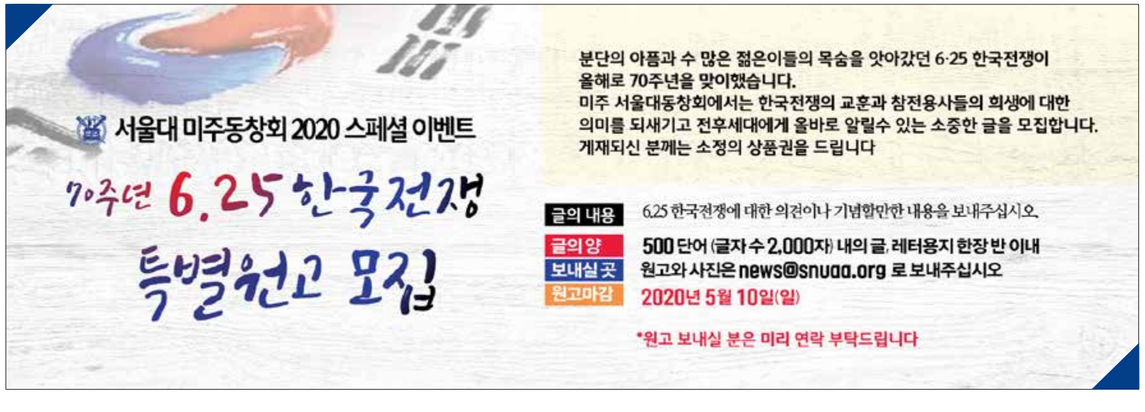
사르트르는 "실존(existence)은 본질(Essence or nature of thing)에 앞선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본질(essence)은 특성(characteristics)을 의미한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푸르다;"라고 한다.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나무의 겉면 만 보고 기술한 것이다. 그 나무는 인간이 기술한 본질(특성)이 있기 전에 실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특성(characteristics)은 事前에 만들어진 모델이나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모델이나 목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事前에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었던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주어진 것은 무한의 자유이며, 이 허무의 바다에서 인간을 구출하는 것은 그의 결단이고 사회 참여이다;" 사회에 변혁을 가져 오려면 극단적으로 입장을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실존주의 소설들은 극단적 인물이나 이야기 줄거리를 채택하고 있다. 수천년 동안 내려오던
윤리나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실존주의는 극단적인 철학이 필요 했던 것이다.
까뮈의 '이방인;'에서 주인공 뫼르소는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도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사람을 살인을 하고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햇빛의 탓으로돌렸다. 그러나 결국 뫼르소는 사형을 당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천년 내려오던 과도한 윤리나 율법은 없애야 되지만, 기본적인 윤리나 법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실존주의자들도 인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큰 틀의 윤리, 종교, 법률을 존중하지만 나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철학자, 소설가 선열, 선배들의 노력에 힘 입은 것이다.



/ 삶과 에세이 /

천국이 따로 없지

이태상 (문리 55)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게 됐어요. (All I could do was just to enjoy the game. That's what has brought me to the U.S. Open win.)"
지난 2015년 7월 13일 미국여자골프(LPGA)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우승한 전인지(당시 20세)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한국 골퍼, 특히 낭자들이 유독 골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로 젓가락, 바느질, 활쏘기 문화 등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한다.

8.15 해방 전후 내가 어렸을 때 종이를 접어 만든 딱지치기, 옛날 엽전을 종이로 싸서 두 끝을 구멍으로 내보내어 갈래갈래 찢어서 이를 많이 차기를 내기하는 장난감 제기차기, 구슬치기, 아니면 나뭇가지 꺾어 손에 알맞게 다듬은 나무때기로 짤막한 나무때기를 쳐서 그 거리를 재서 승부를 가리는 아이들 놀이 자치기가 애들 장난감의 거의 전부였었다. 여자 아이들은 공기돌 갖고 놀거나 줄넘기 하고. 이런 놀이에 온 정신을 팔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놀이의 신동(神童) 달인(達人)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를 회상하면 천국이 따로 없다. 그 후로도 살아 온 세상살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모든 것을 소꿉놀이 하듯 할 때 말이어라.

최근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 '앤스로포신 에폭(Anthropocene epoch)', 인간(anthro)으로 시작된 신기원이란 뜻이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착각에서 일으킨 문명이란 것이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지구와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담긴 말이다.

여기서 우리 미국의 신화학자 조세프 캠벨(Joseph Campbell, 1904-1987)의 말을 새겨보리라.
"세상 사람들 반은 자신들이 따르는 종교적인 전통의 메타포(metaphors)를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 결과 메타포를 사실로 받아드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적인 메타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보건대 소위 무신론자들(atheists)이란 신자들(believers)이 주장하는 인간중심 그것도 백인남성 위주의 그런 편파적인 '신(神)'을 부정할 뿐이다. 미국의 흑인 작가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 1924-1987)이 말했듯이 "신(神)이란 개념이 어떤 타당성이나 용도가 있다면 우리를 좀 더 크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리라. 그럴 수 없다면 그런 신은 집어 치워야 한다. (If the concept of God has any validity or any use, it can only be to make us larger, freer, and more loving. If God cannot do this, then it is time we got rid of him.)"

동양에서는 예부터 인간이 자연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그 일부에 불과함을 주지해오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만인과 만물을 대하는 내 언행이 곡나 자신에게 하는 짓임을 익히 알아오지 않았나. 물론 동양도 이미 많이 서구화 되었지만 서양의 근시안적인 물질문명에 부화뇌동(附和雷動)하고 있는 현실은 심히 유감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내세(來世)를 담보로 독선 독단적인 신(神)의 이름을 빙자해서 현세에서 성직자(聖職者)들롸 선민(選民)들이 그들의 세속적인 특권을 행사해왔다. 십자군이다, 식민지다, 노예제도다, 산업혁명이다, 경제개발이다, 해가면서 말이다.

어떻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더 이상 더럽히고 파손하지 말고, 잘 본존(保存)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낙원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 박평일의 살며 생각하며 /

우주의 중심은 나 자신

박평일 (농대 69)

사실은 바뀌워저야 할 것은 세계가, 사회가, 국가가, 종교가. 철학이, 사상이, 이념이, 경제체제가, 이웃이, ...너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우주이고, 세상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이상사회를 꿈꾸며 수많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종교가 인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유럽의 중세 암흑시대였습이다. 그 암흑시대에는 인간들이 인간들을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의 우상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종교를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빵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인간입니다. 인류는 필연적으로 이상사회 실현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질의 대량생산으로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서구의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대량생산을 통해서 인간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빵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생명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도 필요합니다.

산업혁명과 과학발전을 통한 물질의 대량생산에 뒷따라 나타난 결과는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빈부격차였습니다. 인간들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되었도 돈이 신으로 군림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천재 막스는 평등한 물질적인 부의 분배를 통해서인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평등한 유토피아사회를 꿈꾸는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탄생시킨 것이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인간들은 행복을 위해서 빵과 물질적인 평등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나다. 평등에 앞서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면에서 공산주의 자들의 인간행복에 대한 가정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본가들 대신 공산당고위당원들이 부를 독점하는 부패한 불평등한 사회로 타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과학문명이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과학 신봉자들은 인고위성을 달까지 보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우주에서 행복을 캐오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은 과학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단세포 동물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신비도 필요하고, 신화도 필요로 하고, 예술도 필요로 하며. 사랑도 필요로 합니다. 인류는 일이차대전의 악몽을 겪고나서 과학문명. 물질문명에 깊은 회의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인간의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인 복음주의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과 신앙운동은 모두가 잠시 스쳐가는 역사의 바람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불안심리에서 비롯된 사상이나 종교는 우상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인간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빌게이츠가 윈도우를 발명해 냈을 때 해도 인류는 새롭게 전개될 뉴토피아세계에 대한 꿈으로 부풀었습니다. 아마 빌게이츠도 그렇게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빌게이츠는 십년만 100년간 쌓은 포드의 부를 훨씬 제치고 새계 최대 거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밀리엄시대를 거치면서 인류는 컴퓨터, 인터넷, 셀류어폰 혁명이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편리한 유토피아시대가 도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당신들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시대보다 더 행복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세계 경제적 강국들이 차세대 먹거리라며 목숨을 벌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공지능 시대가 인간들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들의 노동을 줄여주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가 되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신화도 필요로 하고, 신비도 필요하며 시와 예술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로 합니다. 경제적으로 필요없는 낭비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의 진실한 변화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어떠한 상황에 처하던, 자유로운 영혼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행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옵니다.

김동한 (문리 53)

/ 역사칼럼 /

갑오개혁(甲午改革)을 주도한 김홍집②

<지난호에 이어서>영국의 상류사회에서 중국의 차를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자 영국은 교역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식민지 인도에서 재배하는 양귀비에서 얻는 아편을 중국에 밀수했다. 아편은 곧 중국인들의 인기품목이 되어서 청나라와의 교역에서 역조현상이 일어나 이제 중국의 은(銀, 당시의 국제화폐)이 다량으로 유출됐다. 중국에서는 아편중독자가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됐다. 농민들은 곡물을 팔아서는 은을 사서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은이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은값이 올라 타격을 받았고, 정부의 세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자 청나라는 밀수한 아편을 압수하여 폐기처분 하고는 아편의 밀수입을 법으로 금지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 영국이 무력행사를 취하고 청국을 공격하여 1839년 아편전쟁(제1차)이 발발했는데, 세계의 중심이라고 위세를 부리던 청나라가 여지없이 패하고 손을 들었다.

1858년에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또 크게 패하고 1860년 베이징조약(北京條約)을 체결했다. 청나라는 제1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맺은 난징조약(南京條約)에서 홍콩섬(香港)을 영국에 할양했는데, 베이징조약 체결로 홍콩섬 맞은편에 있는 주룽반도 남단을 영국에 할양했으며, 뎬진(天津)을 비롯해 10개의 항을 개항해야 했고, 청나라는 서구를 오랑캐라 하고 수도 베이징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이들과의 문제는 현지에서 해결하도록 했었는데 외교사절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해야 했다. 아편 수입은 합법화됐다. 강화조약을 중재한 러시아에게는 연해주(沿海州)를 넘겨주어서 제정 러시아가 우리 나라와 두만강을 사이에 하고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김홍집에게 설득당한 고종은 조선도 개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작심하고는 일본의 개화상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조사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유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비밀리에 구성하고는 일본을 구경하러 가는 신사들이라 하여 신사유람단이라 부르고 몰래 보냈다. 김홍집이 일본에서 데리고 온 불승 이동인이 일본 공사관을 드나들면서 이들 파송의 교섭을 했다. 러시아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교를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 "조선책략"에서 제시된 바를 수용하여, 김윤식(金允植)을 뎬진에 보내서 청나라 북양통상대신으로써 조선과의 문제가 그의 관할 하에 있는 리훙장(李鴻章)과 협의하고, 그에게 중재를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도 비밀로 하기 위하여 뎬진에 무기제조 기술을 배우러 가는 관비 유학생들의 인솔자 영선사(領選使)라 해서 보냈다. 그리고 1881년 1월 개화 전담기관으로 12사(司, 오늘날의 정부조직에서 부 밑에 있는 국)로 구성된 통리기구아문(統理機構衙門)을 설치하고 김홍집을 불러들여 통상사(通商司)의 당상(堂上)으로 임명했는데 이로서 김홍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무통상장관이 된 것이다.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의 중재를 의뢰받은 리훙장은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 일본에 온 미국 해군제독 슈펠트(Robert W. Shufeldt)를 뎬진으로 초청하여 협의하고 조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선 대표 신헌(申櫶)과 김홍집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서명함으로써 조미수호통상조약이 1882년 5월 22일 체결되었다. 리훙장은 조선이 청국의 속방(屬邦)임을 조약서에 명기하기를 계속 주장하였으나 슈펠트가 반대하여 이루지 못했다.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해서 조선은 영국, 독일 등 서방의 국가들과도 수교하고 당당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됐다.

고종은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그의 부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섭정하였는데 1873년 고종은 대원군을 섭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친정을 시작하였다. 민비 척족(戚族)이 권세를 부렸는데 이내 부패하였고, 고종과 민비(閔妃)의 방만한 소비로 대원군이 선혜청(宣惠廳)에 비축해 놓은 군인들의 봉급미(俸給米, 쌀로 주는 급료)가 바닥이 나서 군인들의 봉급미를 1년이 넘게 지불 못했다.

전라도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쌀이 도착함에 이를 주게 되었는데, 쌀에 계와 모래가 섞여 있었고 양도 부족했다. 격분한 군인들의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군란(임오군란)으로

■저 서 : 국외에서 본 19세기 말의 동아시아와 김홍집

■저 자 : 김동한

확대되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배후의 인물로 보고 납치해 뎬진으로 보내고 군란을 평정했다. 그리고 계속 주둔하고는 내정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중화질서 하에서 지난 몇 백 년을 두고 조선은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모시고 조공을 받치고 책봉(冊封)을 받아왔지만 내정간섭은 없었는데, 청나라는 태도를 바꿔서 종주—종속 관계를 접고 조선을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의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1882년에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라는 조약 아닌 조약인 장정서에 뎬진에 간 진주사(陳奏使) 정사 조영하(趙寧夏), 부사 김홍집, 그리고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을 강압하여 서명케 하고 청나라 황제 광서제(光緖帝)의 재가로 발효시켰다. 이 장정(규정)의 서문에서 "이 번에 제정한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다른 나라들)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즉 "속방인 조선을 우대하는 것으로서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님으로 국제간의 조약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등한 이득을 보지 않는다" 라 하여 조선을 중국의 속방으로 명문화했다. 그리고 청국 과 속방 간의 규정임으로 비준이 필요 없다 하고 청의 황제가 재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효한다 했다. 속방이란 청나라에 속한 나라라는 뜻으로 조선을 서양식 식민지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을 중국의 속방으로 규정한 청국은 1885년 10월 26세의 젊은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조선총독(실제 그의 관직명은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이라 하고 보내서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 뿐만 아니라 외교에 까지 간섭했다. 그리고 청은 대원군을 석방시켜서 위안스카이와 같이 돌아가도록 했다. 임오군란 때 지휘관의 참모로 대원군의 납치와 왕십리 그리고 이태원에서 반란 잔병들의 소탕전에서 공을 세우고 다시 오게 된 위안스카이는 기고만장하여 큰 소리를 치고 조선에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을 도와주었다. 그는 병들어 있는 조선을 고쳐주러 온 의사라 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임지로 가는 주 미국 공사 박정양(朴定陽)의 출발을 막고 조선의 외교사절은 임지에 도착하면 청나라 공사를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영약삼단(另約三端)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받고 서야 그를 떠나게 했다.

동아시아의 맹주 중국도 2차에 걸친 아편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변하기 시작하여, 서구의 군사력의 우수함을 인정하고는 자기들의 윤리 도덕은 지키되 서양의 발달한 산업과 병기제조의 기술을 배우면 된다고 하는 소위 동도서기(東道西器)식의 자강(自强)운동인 양무운동(洋務運動)이 1860년대 초부터 일어났는데, 이의 영향을 받고 조선에서도 이른바 개화(開化)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청나라에 조공을 받치러 가는 등의 사절단(이들을 연행사라 불렀는데 일행은 백여 명 이상이었고 많을 때는 2백 명에 달했다)은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갖가지 신기한 문물을 보고 구해 가지고 돌아왔으며 또 양무운동에 대해 듣고 돌아와서는 조선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드리고 개화해야 한다고 하는 각성을 하는 인사들이 나왔다. 실학자이고 북학파의 영수로서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저자로서 유명한 박지원(朴趾源)의 손자 되는 우의정을 지낸 박규수(朴珪壽)가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홍영식(洪英植), 서광범(徐光範) 그리고 서재필(徐載弼) 등의 서울 북촌 난다하는 양반 가문의 청년들이 그의 사랑방을 드나들면서 서양문물에 대해 강론하였다. 그리고 조선도 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박규수가 죽자 중인(中人) 출신의 개화사상가 유대치(劉大致)의 문하생들이 되었으며, 또 전술한 바 있는 개화승 이동인과도 사귀고 일본의 개화에 대하여 듣고 그가 구해 다 준 일본책들 읽고 일본의 개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김옥균은 세 차례나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의 개화사상가이고 게이오대학(慶應大學)을 설립한 후쿠사와 유기치(福澤雄吉)를 스승으로 모시고 담론하고 조선 개화에 대해 자문도 받았다.
이들은 마침내 1884년 12월 서울에 있는 일본 공사관 경비대 일본군 150명의 지원을 받고는 친청 수구세력인 민비 척족을 제거하고는 조선이 청의 속방이 아니고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개화개혁을 단행하려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주둔 중이던 청군의 출동으로 42시간(날로는 3일) 만에 막을 내리고 쫓겨서 일본으로 망명했다. 갑신년에 일어났다 하여 갑신정변(甲申政變)이라 부른다. 중도적이고 점진적인 개화를 주장하는 김홍집은 이 정변에 불참했고, 정변 후 좌의정이 되어 정변 수습에 나섰다.

<이 글은 '국외에서 본국외에서 본 19세기 말의 동아시아와 김홍집' 내용 중 일부입니다>

박준창 (인문 79)

박변의 내멋대로 영화보기

애덜라인의 나이(The Age of Adaline)

나이를 먹지 않는 삶, 바꿔 말하면 영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나이는 안 먹고 젊은 외모인 채로 죽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 난다면 ... 꼭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그러한 삶에 대한 흥미 있는 탐구라고 할 수 있겠다.

주인공 애덜라인은 1908년 1월 1일 0시 1분에 태어나 그 해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아기가 된다.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딸 애도 낳는다. 여기까지는 그저 평범한 삶인데, 29살이 되는 해, 엔지니어이던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다. 그리고 연이어 본인도 교통 사고를 당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나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의 나이는 29살에서 영원히 멈춘다 (과학이 발전되는 2035년에는 그 현상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가공이고, fantasy 영화이니 무슨 현상인지 굳이 알 필요는 없겠다). 이때부터, 사고 당시 나이 그대로 그녀는 단 하루도 나이를 먹지 않고 29살 젊음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때부터 아는 사람들에게는 늙지 않는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 45세이던 어느 날 사소한 교통 위반으로 걸린 애덜라인. 신분증을 보여 주니 경관은 그녀가 45살이란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다음 날 경찰서에 오라는 경관. 그런데다, 어느 날 밤 수상해 보이는 두 FBI 요원이 나타나 강제로 애덜라인을 테스트 해 보려 한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애덜라인. 이제는 늙지 않는 삶에 순응하며, 매 10년마다 신분 세탁을 하고, 지은 죄도 없이, 도망자 아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사이 그녀의 딸은 정상대로 나이가 들어 가고 있고. 영화는 애덜라인이 107세가 되는 날을 하루 남긴, 2014년 12월 31일 현재부터 시작이 된다. 신년 전야 파티에 참석한 그녀를 보고 한 청년이 첫눈에 반한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음을 알기에 그녀는 매몰차게 거절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도 사랑했던 한 남자와의 가슴 아픈 과거를 떠 올린다. 청혼 반지를 손에 든 그 남자를 공원에서 그냥 바람 맞혀야 했던. 그때 애덜라인의 나이는 벌써 60대, 남자는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애덜라인의 말대로 그들은 함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미래가 없다 ("A future together, growing old together, without that, it is just heartbreak."). 너무 슬픈 말이다.

그러나 이 청년의 집요한 구애에 애덜라인은 흔들리고 데이트를 시작한다. 딸은 이제 82세라 완전한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애덜라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딸은 엄마의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권한다. 딸

과 애덜라인의 만남은 완벽한 할머니와 손녀의 만남이고, 밖에서는 두 사람은 그렇게 할머니와 손녀로 행동해 왔다.

그들은 청년의 아버지의 결혼 40주년 파티에 함께 가기로 하는데, 아버지가 애덜라인을 보는 순간, "애덜라인" 이라고 외친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시듯, 애덜라인이 바람맞혔던, 그녀의 과거 연인은 바로 청년의 아버지였던 것. 애덜라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과학자인 그가 발견한 혜성의 이름을 애덜라인으로 지었을 정도다.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애덜라인은 대를 이어 아들과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가슴 아픈 재회를 통해, 아버지는 결국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다. 왜 그녀가 말 한마디 없이 그를 떠나야 했는지를. 그는 이제는 도망가지 말라고 한다. 오랜 삶을 살았지만 진정한 삶은 없었다며. ("All these years, you've lived, but you've never had a life"). 그러나 그녀는 떠날 수 밖에 없다. 떠난 그녀를 쫓아 가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묻는다. 그녀를 사랑하냐고. 어떻게 아냐고. 아들의 대답: "Because nothing makes sense without her." 그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확인한 아버지는 자신의 차 열쇠를 던져 주며 빨리 쫓아 가라고 한다.

결말은 영화를 보시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발상이 재미있는 영화다. 영생이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니, 늙어감을 감사히 여기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다. 애덜라인 역을 맡은 블레이크 라이블리(Blake Lively)가 빛난다. 이 영화 찍었을 당시 실제 나이가 28살이었으니 한창 아름다울 때다. 원래 예쁜 얼굴에 우아한 기품까지 더해져 있는데, 영화 속에서 몇 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책도 많이 읽은 아주 교양 있는 여자로 나온다. 100년의 인생 경험이니 오죽하겠는가? 온통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매력이 줄줄 넘치니, 그녀의 팬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영화.

동창회비 납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a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가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1.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2.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3.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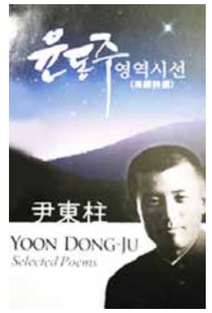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a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학 /

윤동주 영역시선

변만식(사대 49)

영원한 청년 민족시인인 윤동주의 시를 영어로 번역, 미주사회에 알려온 변만식동문이 최근 '윤동주 영역시선'을 펴냈다. 10여년전부터 윤동주 시인의 박애정신과 '모든 생명있는 것을 사랑한' 숭고한 인간성을 알리기 위해 영역 발표에 몰두해 온 결실이다.
작품집은 '서시'(Sky, Wind, Star and Poem), '참회록'(The Confession) '눈 오는 지도'(Snowing Fields) 등 13편의 주옥같은 시가 한글과 영어, 영문해설이 실려 있다.
또 '거리에서' '별 헤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비애' '꿈은 깨어지고' 등 33편의 한글시도 게재돼 있다. 2부는 김소월, 이육사, 박목월, 박두진, 정지용, 천상병, 김지하 등 근현대 한국시인의 아름다운 시편들을 영역한 작품 26점으로 채워졌다.
변 동문은 "윤동주 시인의 시



대를 초월한 인류애와 생명존중의 보편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해도 개성 태생인 그는 서울대 사범대학 영문과 출신으로 대학시절 미육군 기관지인 'The Star & Stripes'(1951-1953)에서 통·번역 기자로 근무했고 서울에서 중 고등 영어교사로 재직하다가 1967년 도미했다.

포토맥 포럼, 윤동주 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 '영역 윤동주 시선' 외에 자서전 'The Path I Walked'를 3개 국어(한, 영, 일)로 출판했다.

< 출처=한국일보>

자화상

-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The Self Portrait

- Yoon, Dong-Ju

Going to the well around the mountain ridge
By the side of rice paddy, I looked down
The well leisurely. Down at bottom the
Bright moon loomed over the cloud in blue sky
Wind was breezing. Autumn was in it, and
There was a man whom I somehow disliked, about
Face, I returned. On the way back home

I felt pity on him, backed I up to the well again
The man still was there. I retreated with hatred
Of him. Yet, passaionate I am, it grew fond of him
In the well the moon was bright in the sky
And wind was breezing
Autumn was there
With a man of sweet memory(so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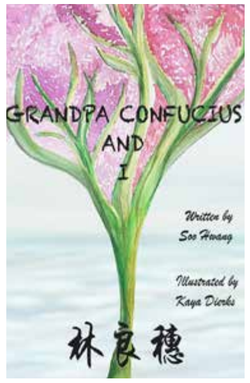
/ 회고록 /

Grandpa Confucius and I

황양수(사범 62)

하와이에 거주 중인 황양수(사범 62) 동문이 회고록 'Grandpa Confucius and I'를 발간했다. 이 책은 한 여인의 미국에서의 삶을 통해 황양수(maden name 임양수)동문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다채로운 캐릭터와 변화무쌍한 스토리, 그리고 한 화자의 관점으로 바라본 'Grandpa Confucius and I'는 한 아시안 여성의 미국에서의 삶을 디테일하게 그려준다.

이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는 물론 빈부의 격차, 한 가족의 비극적인 장면과 승리의 삶을 동시에 보여준다.
황 동문은 "미국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삶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손주들을 위해 집필하게 되었다"며 모계쪽 집안의 이야기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써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책을 읽는 독자들이 아시아국가들의 얼켜진 관계와 유교사상이 바탕인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유교가 아시아의 여성에 미친 영향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으면 한다" 바람을 전했다.
또한 "독자들이 이책을 통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하와이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동문의 회고록은 amazon.com 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후원해 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총 모금액 TOTAL **$463,671**

<모교발전기금 포함>

종신이사 ($3,000) 명단

골드 이사 $10,000 이상 실버 이사 $6,000 이상

남가주〉 강신용(사대 73) 김경숙(간호 68) 김동훈(의대 71) 김보연(간호 63) 김재영(농대 62) 노명호(공대 61) 노재성(법대 58) 박명근(상대 63) 박윤수(문리 48) 박종수(수의 58)
방명진(공대 73) 서동영(사대 60) 서영석(의대 55) 서치원(공대 69) 심상은(상대 54) 심화섭(약대 61) 오재인(치대 33) 오흥조(치대 56) 이병준(상대 55) 이세열(사대 57) 이종도(공대 66)
이청광(상대 61) 이홍표(의대 58) 임낙균(약대 64) 임용오(의대 57) 전희택(의대 60) 정동구(공대 57) 정임현(간호 72) 제영혜(가정 71) 조용원(문리 66) 차민영(의대 76) 차종환(사대 54)
하기환(공대 66) 한귀희(미대 68) 한홍택(공대 60) 한효동(공대 58) 북가주〉 김정희(음대 56) 손석보(공대 68) 뉴욕〉 김광호(문리 62) 신응남(농대 70) 오인석(법대 58) 윤정옥(약대 50) 이기영(농대 70)
이전구(농대 60) 이재덕(법대 60) 이준행(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보건 69) 김문소(수의 61) 박경민(의대 53) 박영철(농대 64) 오세경(약대 61) 윤상래(수의 62) 윤선홍(치대 64) 정선주(간호 68)
정정욱(의대 60) 정태영(문리 71) 홍지복(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식(사대 58) 권기현(사대 53) 류재풍(법대 60) 민홍기(문리 61) 방은호(약대 43) 오인환(문리 63) 워싱턴주〉 이회백(의대 55)
시카고〉 남상용(공대 52) 심상구(상대 63) 이용락(공대 48) 정 태(의대 57) 한재은(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빈(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공대 61) 남세현(공대 67) 조형준(문리 62)
오하이오〉 김용헌(경원 66) 중부텍사스〉 이광연(공대 60) 조지아〉 주중광(약대 60) 허지영(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공대 64) 손재옥(가정 77) 이만택(의대 52) 주기목(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이교락(의대 53) 이상강(의대 70) 휴스턴〉 박태우(공대 64) 조시호(문리 59)/카네기음악회순수익

일반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동창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제 혜택 및 기부안내

1)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12 델라웨어주에 비영리 법인 {IRC 501(c)(3)}으로 등록되었으며
2) 미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미주 각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단체 면세승인 (Group Tax Exempt) 번호 3784를 취득하여 여러분의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연방국세청법(IRC 2055, 2016 and 2522)에 따른 각종자산에 대한 유산 (Bequests, Legacies) 유증(Divises), 양도(Trensfers)및 기증(Gifts)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4)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동창회로 문의해주십시오.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SNUAA-USA /E. Peter Shin, ESQ.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T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www.snuaa.org

4월 후원자 (감사합니다)

박영철 (농대 64)	정선주(간호대 68)	임낙균(약대 64)
강창욱(의대 55)	조남천(사대 59)	김연화(음대 68)

지부 분담금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회장: 조정현)	뉴잉글랜드 (회장: 이강원)	워싱턴주 (회장: 이명자)
조지아 (회장: 이영진)	워싱턴 D.C (회장: 정평희)	남가주 (회장: 민일기)
하와이 (회장: 성낙길)	시카고 (회장: 장윤일)	미네소타 (회장: 송세진)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89명)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흥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귀희 (미대 68) (S)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손석보 (공대 68)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응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
이회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상대 63)
이용락 (공대 48) (S)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S)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하이오
김용헌 (경원 66)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6,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전회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업소록 광고비

강신용 (사대 73)	240
김원탁 (공대 65)	240
이경희 (인문 83)	240
정세근 (자연 82)	240
강호석 (상대 81)	240
백승원 (의대 73)	240
서동영 (사대 60)	240
석창호 (의대 66)	240
손재옥 (가정 77)	240
신동국 (수의 76)	240
엄달용 (공대 69)	240
유창호 (약대 74)	240
이경림 (상대 64)	240
이병준 (상대 55)	240
이준영 (치대 74)	240
이종묘 (간호 69)	240
이창석 (의대 72)	240
정재훈 (공대 64)	480
김원철 (농대 70)	240
염동해 (농대 74)	240
김원탁 (공대 65)	240
김일영 (약대 61)	480
최무식 (약대 66)	240
C THOMAS PARK PEDIATRICS	240

광고비

SEOUL MEDICAL GROUP	1,540
TIMOTHY HAAHS & ASS.손재옥	1,500
김권식(EVS)	1,500
이병준(Seah)	1,500
키스프로덕트	1,500
(1/8/20)	1,500
미래에셋 (~10/2019)	1,200
한남체인	1,000
뉴밀레니엄 뱅크	1,000
실로암병원- 정균희	720
듀오(10/24/19)	400
(11/14/19)	400
(12/11/19)	400
(1/17/20)	400
(2/13/20)	400
(3/13/20)	400

나눔

차수만 (약대 71)	300
김정화 (음대 56)	25
박수영 (농대 53)	25

모교발전기금

남세현 (공대 67)	2,000
오인환 (문리 63)	300
박원준 (공대 53)	300
권철수 (의대 70)	100
오석일 (의대 64)	100

장학금

이용락 (공대 48)	500
정진수 (공대 56)	425
오인환 (문리 63)	200
임필순 (의대 54)	100
이원섭 (농대 77)	100
황현상 (의대 55)	100
문성인 (공대 88)	100
이규만 (문리 61)	25
조형원	5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이채진 (문리 85)	100

지부 분담금 (2019/7/1~2020/6/30)

워싱턴 D.C.(1/17/20)	2,000
남가주	3,000
시카고(3/19/20)	2,400
필라델피아(3/25/20)	1,500
뉴잉글랜드(4/16/20)	1,000
미네소타(3/13/20)	600
워싱턴주(3/25/20)	600
조지아(3/25/20)	400
하와이(3/4/20)	300

특별후원금

28차 평의원회의 후원금

서울 총동창회	3,000
김동희 (공대 66)	100
박평일 (농대 69)	200
송웅길 (신문 69)	150
유성은 (의대 88)	1,300
유시영 (문리 68)	300
윤봉수 (간호 69)	100
한태진 (의대 58)	500

카네기음악회 후원금

신응남	$16,947.74
서울 총동창회	3,0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뉴욕지역 골든클럽	2,0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강에드 (사대 60)	500
곽선섭 (공대 61)	300
권문웅 (미대 61)	200
김광호 (문리 62)	1,000
김승호 (공대 72)	2,000
김종율 (사대 53)	300
김해암 (의대 52)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용면 (의대 48)	100
민준기 (공대 59)	300
박영철 (농대 64)	2,000
정선주 (간호 68)	
박윤수 (문리 48)	1,200
박종수 (수의 58)	1,000
박희병 (치대 63)	200
백승원 (의대 73)	1,500
석창호 (의대 66)	400
선종철 (의대 57)	200
성기로 (사대 57)	200
손재옥 (가정 77)	500
송웅길 (대원 69)	500
송학린 (법대 59)	650
신응남 (농대 70)	2,000
연봉원 (문리 61)	300
윤상래 (수의 62)	1,000
윤은상 (상대 66)	80
이병준 (상대 55)	1,000
이상무 (의대 62)	100
이수호 (보건 69)	200
이용락 (공대 48)	650
이준행 (공대 48)	1,000
이충무 (의대 69)	500
정정욱 (의대 60)	200
조남천 (사대 59)	60
조달훈 (사대 66)	500
조상근 (법대 69)	1,000
최경석 (사대 80)	650
최수용 (상대 55)	500
최철용 (농대 57)	5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형무 (법대 69)	200
추재옥 (의대 57)	1,000
한경수 (문리 57)	300
한귀희 (미대 68)	1,400
한영수 (의대 61)	200
홍종만 (공대 64)	300
홍지복 (간호 70)	500
DOUBLE TREE (최용렬)	500

일반후원금

남가주

노명호 (공대 61)	1,000
박종수 (수의대 58)	1,000
오영숙 (간호)	500
김정희 (음대 56)	500
이창신 (법대 57)	500
임낙균 (약대 64)	500
정재훈 (공대 64)	370
김기수 (공대 74)	200
심상은 (상대 54	200
황만익 (사대 59)	200
이범식 (공대 61)	200
임춘수 (의대 57)	200
백옥자 (음대 71)	200
유재환 (상대 67)	200
박민식 (수의대 65)	200
김영순 (음대 59)	200
김동석 (음대 64)	200
최용완 (공대 57)	200
양승문 (공대 65)	200
신동국 (수의대 76)	150
박서규 (법대 56)	100
송명국 (인문 81)	100
위종민 (공대 64)	100

뉴욕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랑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강 에드워드(사대 60)	400
조명애 (간호 47)	375
이운순 (의대 52)	200
유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허선행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이정희 (사대 54)	200
허병렬 (사대 42)	100
이상원	25
민준기(공대 59)	25

뉴잉글랜드

박영철/정선주 (농대 64)(간호 68)	2,000
윤상래 (수의대 62)	500
김광수 (문리 77)	200
김정환 (공대 52)	200

미네소타

김권식(공대 61)	500
문성인 (공대 88)	50
차재호 (농대 84)	50

메사추세츠

고종성 (사범 75)	400
김광수 (자연 73)	200

노스캐롤라이나

한광수 (의대 57)	700
김기현 (문리 52)	200

버지니아

민홍기 (문리 61)	500
김진수 (의대 60)	100

메릴랜드

이선구 (문리 65)	200
임종식 (의대 51)	200
권철수 (의대 70)	200
김종호 (약대 68)	200
강길종 (약대 69)	200
강창욱 (의대 55)	100

시카고

이용락 (공대 48)	500
강영국 (수의 67)	200
김연화 (음대 68)	200
이성길 (의대 71)	200
소진문 (치대 58)	200
오동환 (의대 65)	200
김일훈 (의대 51)	200
한재은 (의대 59)	200

미시간

김정화 (음대 56)	50

버몬트

최선희(문리 69)	100

아리조나

박양환 (약대 48)	200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200

오클라호마

김경숙(가정 70)	200
이상강(의대 70)	200

오하이오

성홍환 (수의대 75)	300

일리노이

조형원 (약대 50)	500
홍청일 (약대 57)	200
김연화 (음대 68)	200
이영우/김동희 (문리 66)/(공대 66)	200
김성범 (상대 50)	200

워싱턴 DC

권철수 (의대 70)	200
서윤석 (의대 62)	200
이영묵 (공대 59)	200
이서구 (문리 61)	200

워싱턴 주

조지아

정량수(의대 60)	25
정경근 (농대 59)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정 77)	500
조정현 (수의 58)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전무식 (수의 61)	200
지흥민 (수의대 61)	200
주기목 (수의대 68)	200
조정현 (수의 58)	200
진병학 (의대 57)	100
정태광 (공대 74)	100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200
오석일 (의대 64)	200
한성수 (의대 54)	50

커네티컷

김기훈 (상대 52)	200

휴스턴

진기주 (상대 60)	500

동창회비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 표: 2차 회기까지 내신 분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남가주
S.CA/NV

강경수 (법대 58)
강동순 (법대 59)
강윤희 (간호 46)
강중경 (공대 48)
강창만 (의대 58)
강호석 (상대 81)
강홍제 (상대 53)
강희창 (공대 57)*
고석규 (치대 65)
고석원 (문리 50)
고재천 (공대 57)
권기상 (경영 72)*
구철회 (의대 78)
김광은 (음대 56)
김강수 (문리 59)*
김경옥 (미대 61)*
김교복 (농대 63)
김건진 (문리 62)*
김경순 (행정 62)
김기수 (공대 74)
김동석 (음대 64)
김동산 (법대 59)
김동인 (상대 56)
김명숙 (농대 58)
김병연 (공대 68)*
김병완 (공대 58)*
김보연 (간호 63)
김생철 (법대 54)*
김석홍 (법대 59)
김성건
김성복 (공대 59)
김성호 (법대 64)
김세윤 (문리 65)
김수영 (사대 57)
김순길 (법대 54)
김순덕 (간호 61)
김순자 (치대 57)*
김영덕
김영봉 (사대 60)
김영순 (음대 59)
김영창 (공대 64)
김영한 (법대 54)*
김영희 (사대 56)*
김용채 (문리 61)
김원호 (약대 63)
김일영 (의대 65)
김원탁 (공대 65)
김익수 (수의 53)
김자경 (사대 60)
김재영 (농대 62)
김재종 (치대 62)*
김정애 (간호 69)
김종식 (사대 58)
김종표 (법대 58)
김준일 (공대 62)
김태윤 (법대 53)
강창만 (의대 58)
김창무 (음대 53)
김학철 (의대 55)*
김홍묵 (문리 60)
김희재 (사범 66)
나두섭 (의대 66)
나승욱 (문리 59)
노명호 (공대 61)
문병길 (문리 61)
문병하 (법대 51)
문인일 (공대 51)*
문정현 (약대 54)
민수봉 (상대 55)*
민일기 (약대 69)*
박금옥 (사대 63)
박대균 (수의 57)
박민식 (수의대 65)
박명근 (상대 63)*
박민식 (수의 65)*
박부강 (사대 64)
박은숙 (미대 62)*
박인수 (농대 64)
박인창 (농대 65)
박일우 (의대 70)
박원준 (공대 53)
박정자 (사범 61)
박종수 (수의 58)*
박찬호 (농대 63)
박창규 (약대 59)
박재호 (치대 54)*
박태호 (치대 66)*
박취서 (약대 60)*
박호현 (의대 52)
박홍근 (공대 64)
박희규 (수의 55)
방명진 (공대 73)
변영근 (수의 52)
배동완 (공대 65)
배병옥 (음대 58)
백옥자 (음대 71)
배옥례
백혜란 (미대 70)*
서동영 (사대 60)
서명희 (농대 67)
서치원 (공대 69)
손기용 (의대 55)
손학식 (공대 61)
송명국 (인문 81)*
송영훈 (상대 57)*
신건호 (법대 53)
신규식 (농대 61)
신광재 (공대 73)
신동국 (수의 76)
신영찬 (의대 63)*
신정식 (상대 64)
심상은 (상대 54)*
심영춘 (수의 64)
양명교 (의대 55)*
안병일 (의대 63)
양승문 (공대 65)
양운택 (의대 58)
양창효 (상대 54)
양태준 (상대 56)
염동해 (농대 74)
오선웅 (의대 63)
오양숙 (간호 60)
위종민 (공대 64)*
유재환 (상대 67)*
유진형 (상대 47)
유희자 (음대 68)
육태식 (의대 61)
윤경민 (법대 55)
윤용길 (공대 55)
윤희성 (치대 65)
이강훈 (치대 65)*
이경희 (인문 83)
이건영 (문리 71)
이기재 (사대 52)
이건일 (의대 62)*
이명선 (상대 58)
이문상 (공대 62)
이방기 (농대 59)
이범식 (공대 61)*
이범모 (치대 74)*
이병준 (상대 55)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공대 56)
이소희 (의대 61)*
이영일 (문리 53)*
이영현 (간호 70)
이원택 (의대 65)
이익삼 (사대 58)
이원익 (문리 73)*
이장길 (치대 63)
이재권 (법대 56)
이재룡 (공대 71)
이정근 (사대 60)
이정희 (미대 61)
이정화 (공대 52)
이준호 (상대 65)
이종묘 (간호 69)
이창무 (공대 54)*
이창신 (법대 57)
이청광 (상대 61)
이채진 (문리 85)
이홍표 (의대 58)
이희충 (공대 68)
임낙균 (약대 64)*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석중 (공대 51)*
임진환 (치대 68)*
임창희 (공대 73)
이중희 (공대)*
임화식 (치대 59)
이호진 (간호 74)
이현찬 (치대 75)*
이해영 (공대 56)
장기열 (치대 55)*
장서경 (음대 67)
장소현 (미대 65)
장윤희 (사대 54)
장인숙 (간호 70)
장정용 (미대 64)
전경철 (공대 55)
정동주(생활과학 72)
정진우 (의대 66)
전낙관 (사대 60)
전원일 (의대 77)*
정동구 (공대 57)*
전범수 (농대 71)
전상옥 (사대 52)
정균희 (의대 66)
정재화 (상대 59)*
정연웅 (상대 63)
정예현 (상대 63)
정진우 (의대 66)
정재훈 (공대 64)*
정철륭 (의대 55)
정현진 (간호 68)
정형민 (문리 71)
정 황 (공대 64)
제영해 (생과 71)
조동준 (의대 57)*
조성준 (의대 58)
조일혜 (약대 58)
조만연 (상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상호 (농대 51)*
조정시 (공대 60)
주정래 (상대 65)
차종환 (사대 54)*
최명용 (음대 64)
최영순 (간호 69)
최용완 (공대 57)*
최종권 (문리 59)
최희웅 (문리 59)
한동수 (의대 60)*
한원민(의대 59)*
한정헌 (치대 55)
한종철 (치대 62)*
한혜순 (간호 70
한정헌 (치대 55)
한홍택 (공대 60)
홍선례 (음대 70)
홍선일 (공대 71)
황선주 (간호 69)*
홍성선 (약대 72)
황윤석 (상대 66)*
황해용 (공대 52)
현기웅 (문리 64)

북가주
SAN FRANCISCO

공순화 (사범 56)
강재호 (상대 57)*
강정수 (문리 61)*
권오형 (사대 61)
김윤범 (의대 54)
김명환 (문리 67)
김병호 (상대 57)
김일균 (의대 64)
김정복 (사대 55)
김정희 (음대 56)*
김현왕 (공대 64)
김희봉 (공대 68)*
노상규 (공대 60)
민병곤 (공대 65)
박경용 (약대 63)*
박서규 (법대 56)
박성수 (공대 59)
신규영 (공대 64)
안현수 (상대 67)
안호삼 (문리 58)*
양명교 (의대 55)
양서명 (보건 66)
온기철 (의대 65)*
유제이
이강우 (문리 59)*
이관모 (공대 55)
이성형 (공대 57)
이송희 (간호)*
이재권 (법대 56)
이진희 (간호 70)*
이홍기(공대 62)
임정란 (음대 76)
임희례 (간호 73)
손창순(공대 69)*
정규남 (공대 52)
정유석 (의대 58)
정지선 (상대 58)
정진수 (공대 56)
조태묵 (사범 60)
조태준 (문리 59)
정준임 (간호 67)
최경선 (농대 65)
최영순 (간호 69)*
탁은숙 (문리 54)
한상봉 (수의 67)*
한원민 (의대 59)
홍병익 (공대 68)
홍수웅 (의대 59)
황규혁 (공대 50)
황동하 (의대 65)
황만익 (사대 59)

뉴욕
NJ/NY

강교숙 (간호 73)
강애드워드 (사대 60)*
강명자 (사대 63)
강영선 (공대 50)
강석권 (법대 61)
계동휘 (치대 69)*
고순정 (간호 69)
곽노섭 (문리 49)
권문웅 (미대 61)*
곽상준 (약대 55)
곽선섭 (공대 61)*
권영국 (상대 60)*
권정덕 (의대 58)
김종원 (사범 58)
김광호 (의대 66)
김광현 (미대 57)*
김동환 (약대 56)
김명철 (공대 60)
김문경 (약대 61)*
김봉련 (사대 54)
김병권 (문리 63)*
김석식 (의대 58)
김석자 (음대 61)
김성래 (치대 76)
김성현 (약대 56)
김세환 (공대 65)
김수일 (약대 62)
김순희 (음대 76)
김승호 (공대 71)
김영수 (법대 66)
김영애 (사대 56)
김영철 (의대 55)
김영희 (간호 53)
김완주 (의대 54)*
김우영 (상대 60)
김용연 (문리 63)
김유순 (간호 64)*
김윤수 (상대 50)
김은섭 (의대 53)
김은희 (간호 71)
김정희 (약대 56)
김정희 (간호 69)
김종율 (사범 51)
김종현 (법대 57)
김태일 (공대 68)*
김학자 (간호 59)
김한종 (의대 56)*
김해암 (의대 53)
김현중 (공대 63)[2]
김훈일 (공대 60)*
남옥우 (음대 55)
로종애 (음대 57)
류재은 (미대 71)
민발식 (의대 60)
민준기 (공대 59)*
박건이 (공대 60)*
박상원 (음대 69)*
박수안 (의대 59)
박수영 (농대 53)
박순영 (법대 56)
박승화 (간호 69)*
박정자 (간호 62)
박진우 (상대 77)
박영태 (상대 63)
반영철 (약대 54)
방준재 (의대 63)*
변혜순 (간호 68)
배상규 (약대 61)*
백승원 (의대 73)
서 량 (의대 63)
서영숙 (간호 67)
서정웅 (약대 63)
선종칠 (의대 57)
석창호 (의대 66)*
성기로 (약대 57)*
손갑수 (약대 59)*
손규성 (사대 61)
송기인 (의대 60)*
송용섭 (농대 63)
송웅길 (신문 69)*
송혜순 (사범 62)
신두식 (의대 58)
신응남 (농대 70)*
신정자 (간호 62)
신춘희 (간호 53)
안태홍 (상대 65)*
양거영 (의대 49)
연봉원 (문리 61)
엄종열 (미대 61)
우관혜 (음대 63)
우대식
우상영 (상대 55)
유영은 (사범 57)
유정자 (간호 63)
유재섭 (공대 65)
유택상 (문리 58)
윤영섭 (의대 57)*
윤인숙 (간호 63)
윤종숙 (약대 66)
윤 철
윤희정 (문리 59)
윤현남 (공대 64)
엄종열 (미대 60)
염극용
이강홍 (상대 60)*
이경림 (상대 64)
이국진 (사대 51)*
이근수 (상대 64)
이명종 (공대 72)
이명준 (공대 72)
이상무 (의대 56)
이상근 (경영 84)
이성근 (의대 60)
이상원 (62)
이승일 (경원 66)
이영일 (의과 60)*
이영희 (미대 68)
이지현 (문리 73)
이진자 (간호 60)*
이재랑 (상대 61)
이재진 (의대 58)
이정자 (간호 59)*
이정은 (의대 58)
이정희 (사대 54)
이종환 (법대 51)
이창길 (자연 85)
이충호 (의대 63)
이태상 (문리 55)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임충섭 (미대 6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광현 (경영 76)
정동성 (상대 58)*
정인용 (의대)
정해민(법대 55)
조남천 (사범 59)*
조달훈 (사대 66)
조득환 (의대 61)*
조대영 (공대 61)
조태환 (상대 56)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영호 (음대 56)
조종수 (공대 64)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차수만 (약대 71)
천병수 (공대 70)
최구진 (약대 54)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영수 (의대 61)
한용현 (의대 48)
한태진 (의대 58)*
허병렬 (사범 42)*
허선행 (의대 58)
허정열 (사대 63)
허유선 (가정 83)
허용웅 (상대 63)
홍선경 (의대 58)
홍종만 (공대 64)

뉴멕시코

이경화 (공대 56)

뉴잉글랜드
MA/RI/NH/ME/VT

고종성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선혁 (약대 59)
김정환 (공대 52)*
김형범 (문리 57)
박영철 (농대 64)*
박종건 (의대 56)
송미자 (농대 62)
윤영자 (미대 60)
이강원 (공대 66)*
이기순 (간호 70)*
이금하 (문리 69)*
이의인 (공과 68)
윤상래 (수의 62)
장수인 (음대 76)*
전신의 (문리 57)*
정선주 (간호 68)*
최선희 (문리 69)
한승원 (미대 60)
홍영애 (사범 68)

라스베가스
LV/NV

김영중 (치대 66)
김택수 (의대 57)
이학은 (약대 57)*

록키마운틴
MT/CO/WY/NM

류광현 (문리 58)
박용호 (의대 59)
송요준 (의대 64)
이규만 (문리 61)

미네소타
MINNESOTA

강패트리샤 (상대)
김권식 (공대 61)*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변우진 (인문 81)*
성욱진 (치대 87)
송세진 (치대 78)
송창원 (문리 53)
양태종 (인문 89)*
이창재 (문리 56)*
왕규현 (의대 58)
조성구 (의대 59)*
주한수 (수의 62)
차재호 (농대 84)
황효숙 (사대 65)

샌디에고
SAN DIEGO

이영신 (간호 77)
임춘수 (의대 57)*
조두연 (수의 62)

시카고
IL/IN/WI/MI

강영국 (수의 67)
강신조 (공대 62)*
구경회 (의대 59)*
김길중 (의대 59)*
김동희 (공대 66)*
김사직 (상대 59)*
김용주 (공대 69)*
김윤하 (공대 66)*
김재석 (의대 61)
김정숙 (약대 51)
김정화 (음대 56)*
김종성 (71)
강창만 (의대 58)
김현주 (문리 61)
고병철 (법대 55)*
곽영로 (수의 72)*
권철수 (의대 70)*
김갑중 (의대 57)
김병윤 (문리 65)
김성일 (공대 68)
김승주 (간호 69)
김일훈 (의대 51)
김연화 (음대 68)*
김용호 (약대 69)
김우신 (의대 60)
김재권 (의대 62)
김정수 (문리 69)
김정숙 (약대 51)
김정화 (음대 56)
김현배 (의대 66)
남성희 (의대 56)
노영일 (의대 62)
민영기 (공대 65)
박동수 (문리 58)
박상연 (간호 69)
박영준 (문리 67)
박용순 (의대 53)
박소녀 (치대 89)
박정일 (의대 61)*
박창욱 (공대 56)*
박천자 (사대 64)*
배영섭 (의대 54)
백운기 (문리 56)
서상현 (의대 65)
송재현 (의대 46)
신동화 (문리 55)
안신훈 (농대 61)*
안영학 (문리 57)
안은식 (문리 55)
안창현 (의대 55)
오동환 (의대 65)*
오봉완 (법대 53)
원인숙 (간호 69)*
유동완 (농대 68)*
육길원 (사범 59)
윤봉수 (간호 69)
이경미 (미대 69)
이덕수 (문리 58)*
이동균 (공대 75)
이민우 (의대 61)
이상일 (의대 60)
이성길 (의대 65)*
이성길 (상대 58)
이소희 (간호 68)*
이시영 (상대 46)
이승자 (사대 60)
이종일 (의대 65)
이용락 (공대 48)
이영우 (문리 66)*
이영철 (공과 60)
이정일 (농대 57)
임이섭 (미대 54)
임현재 (의대 59)
소진문 (치대 58)
신석균 (문리 54)*
장세곤 (의대 57)
장시경 (약대 58)
장윤일 (공대 60)*
정승규 (공대 60)*
조대현
조문희 (공대 56)*
조병권 (공대 64)
조의열 (의대 62)*
조형원 (약대 50)
최대한 (의대 53)
최희수 (문리 67)
하계현 (공대 64)
한재은 (의대 59)
한의일
황치룡 (문리 65)
홍청일 (약대 57)

아리조나
ARIZONA

진명규 (공대 70)
박양세 (약대 48)

오하이오
OHIO

김동광 (공대 62)
명인재 (자연 75)*
송용재 (의대 63)*
이 영
성홍환 (수의 75)*

앨라스카
ALASKA

윤제중 (농대 54)

오레곤
OR/ID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대 78)
성성모 (사대 67)
김영자 (간호 53)
최용성 (의대 55)*
한국남 (공대 57)
한영준 (사대 60)

워싱턴 DC
DC/MD/VA/WV

강길종 (약대 69)
강창욱 (의대 55)*
고무환 (법대 57)*
공순옥 (간호 66)
곽명수 (문리 65)
권영희 (약대 66)*
권오근 (상대 58)
권정도 (치대 63)
권철수 (의대 68)
권철수 (의대 70)
계화자 (문리 61)
김동훈 (법대 56)*
김명자 (법대 52)
김복순 (사대 55)
김안정 (문리 59)
김용덕 (의대 53)
김응환 (치대 88)
김종호 (약대 68)
김진수 (의대 60)
김찬규 (공대 54)*
김희주 (의대 62)*
남춘일 (사대 69)
민홍기 (문리 61)
박영호 (공대 64)
박인영 (의대 69)
박일영 (문리 59)
박은희 (미대 68)
박홍우 (문리 61)
백 순 (법대 58)
변만식 (사대 49)
서윤석 (의대 62)
석균범 (문리 61)
송병준 (약대 68)
안선미 (농대 65)*
안승건 (문리 55)
안태민 (공대 62)
양광수 (공대 73)*
오광동 (공대 52)
오인환 (문리 63)
우제형 (상대 54)
원종민 (약대 57)
유영준 (의대 68)
유덕영 (공대 57)
유정식 (수의 60)
이건형 (수의 54)*
이 규
이규양 (문리 62)
이내원 (사대 58)
이문항 (공대 46)
이서구 (문리 61)
이선구 (문리 65)
이수안 (공대 54)
이연주 (치대 88)
이영덕 (사범 61)*
이영수 (공대 59)
이유세 (사대 72)*
이윤주 (상대 63)*
이재승 (의대 55)
이종두 (의대 57)
이종삼 (문리 54)
이주희 (음대 89)
이진호 (공대 46)
임종식 (의대 51)
임창주 (공공 55)*
전건희
전희순 (간호 76)
정계훈 (문리 55)
정원자 (농대 62)*
정평희 (공대 71)
조경윤 (공대 67)*
조세진 (의대 65)
조화유 (문리 61)*
최재규 (미대 63)
한정민 (농대 87)
한정희 (미대 81)
한의생 (수의 60)
함은선 (음대 77)
홍영석 (공대 58)

워싱턴주
WASHINGTON

김교선 (법대 54)
김인배 (수의대 59)*
김재훈 (공대 72)*
김주응 (의대 56)
김형록 (간호 59)
류성열 (공대 72)*
박진수 (의대 58)
박찬형 (의대 56)
박호성 (의대 55)
변총혜 (법대 58)
윤석진 (문리 64)
윤태근 (상대 69)*
이길송 (상대 57)
이원섭 (농대 77)*
이회백 (의대 55)
최경수 (문리 54)
최준한 (농대 58)
하주홍 (경영 77)
홍영옥 (음대 54)*

유타
UTAH/NV

김인기 (문리 58)*

조지아
GA/AL/MS

강창석 (의대 73)*
김기준 (공대 61)
김순옥 (의대54)*
김용건 (문리 48)*
김영서 (상대 54)
김순옥 (의대 54)*
김태형 (의대 57)
김현희 (간호 59)
노한순 (농대 56)
박천기 (법대 56)
백낙영 (상대 61)
백성식 (약대 58)
서광모 (공대 65)
손종수 (의대 50)
송용덕 (의대 57)*
신동헌 (농대 49)
안승덕 (상대 51)
오경호 (수의대 60)
양정자 (간호 61)
유성무 (상대 66)
유우영 (의대 61)*
임수암 (공대 62)
임한응 (공대 60)*
오신중 (의대 60)
정경근 (농대 59)
정량수 (의대 60)
정선휘 (공대 65)*
최재학
최종진 (의대 63)
한 호 (상대 62)

텍사스
LA/DALLAS

김한섭 (의대 53)
박석규 (간호 59)
박유미 (약대 62)
송요한 (문리 73)*
유 황 (농대 56)
이영재 (상대 58)
전중희 (공대 56)
조진태 (문리 57)
탁혜숙 (음대 67)
최휘기 (공대 61)
황명규 (공대 61)*

필라델피아
PA/DE/S.NJ

강준철 (사대 59)
길정숙 (사대 53)[5]
김국간 (치대 64)
김규화 (상과 63)
김영남 (의대 61)
김영우 (공대 55)
김주진 (법대 54)[5]
김정현 (공대 68)
김진우 (공대 63)
김진우 (공대 62)*
김재술 (약대 58)
김한중 (공대 56)
김현영 (수의 58)*
노은숙 (약대 53)*
문대옥 (의대 67)
배성호 (의대 65)
손재옥 (가정 77)
송성균 (공대 50)
송성익 (문리 59)
서재진 (공대 47)
서의원 (공대 66)
성정호 (약대 59)*
신선자 (사범 60)
신성식 (공대 56)
신의석 (공대 53)*
심영석 (공대 76)
심완섭 (의대 69)
안세현 (의대 62)
엄종렬 (미대 61)
오진석 (치대 56)
윤정나 (음대 57)
이규호
이만택 (의대 52)
이영선 (공대 52)
이성득 (문리 67)*
전무식 (수의 61)
정덕준 (상대 63)
전희근 (의대 54)
정태광 (공대 74)
정홍택 (상대 61)*
조영호 (음대 56)
조정현 (수의 58)
조화연 (음대 64)*
주기목 (수의 68)
지흥민 (수의 61)
진병학 (의대 57)
차호순 (문리 60)
최종무 (상대 63)*
최현태 (문리 62)
한동휘 (문리 57)
한용오 (보건 70)

플로리다
FLORIDA

김동한 (문리 53)
김재석 (의대 66)
김중권 (의대 63)
나혜원 (약대 55)
박창익 (농대 64)
오석일 (의대 64)
윤기향 (법대 65)*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최준희 (의대 58)
하재청 (문리 67)*
한기빈 (공대 52)
한성수 (의대 54)*
황현상 (의대 55)*

커네티컷 CT

김기훈 (상대 52)*
라찬국 (의대 57)
유시영 (문리 68)*
서태근 (문리 55)*
주공로 (공대 68)*
최창송 (의대 54)
홍성휘 (공대 56)

캐롤라이나
SC/NC/KY

김기현 (문리 52)
마동일 (의대 57)
이달호 (사대 45)
이범 세 (의대 53)
이석형 (사대 56)
이종영 (음대 58)*
정신호 (자연 78)

테네시
TENNESSEE

김경덕 (공대 75)
박재현 (자연 81)
서갑식 (공대 70)*

하와이
HAWAII

김승태 (의대 57)
유재호 (문리 57)
이재형 (수의 61)
임양수 (사범 62)
장광수
최경윤 (상대 51)*

하트랜드
IA/MO/KS/NE/
AR/OK

구명순 (간호 66)
김경숙 (가정 70)*
김시근 (공대 72)
김호원 (치대 56)
이상강 (의대 70)*
임영신 (의대 54)
차봉회 (의대 51)

휴스턴
HOUSTON

최성호
탁순덕 (사범 57)
박태우 (공대 64)
유한창 (공대 69)
이길영 (문리 59)
이규진 (약대 60)
진기주 (상대 60)*
최관일 (공대 54)
최용천 (의대 53)*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_**	☐ **$75** (2019. 7 ~ 2020. 6) ☐ **$150** (2019. 7 ~ 2021. 6) ☐ **$3,000** (종신이사회비)	☐ $240 (2019. 7 ~ 2020. 6) ☐ $480 (2019. 7 ~ 2021.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 ☐ Charity Fund (나눔) $_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 ☐ 모교발전기금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남가주 |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이종도 (공대 66)
T: 626-448-7870 / F: 626-448-3955
www.leedco.com/ leedco@aol.com
3380 Flair Dr. Suite 225 El Monte, CA 91731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의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나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광고주를 모십니다 /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종 (문리대 61)
T: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의료 / 치과

/ 광고주를 모십니다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옥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흥조 (치) • 이영묵 (공) • 이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 손재옥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종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서리):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곽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옥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헌 (상), 서중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	818-450-7868	yongjunechoi@yahoo.com	
북가주 SAN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제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헌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사대 72)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MEDICAL CLINIC
실로암 병원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한남체인과 함께하면
언제나 웃음이 있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또 신선한 제품으로만
전해드리기위해 새해에도 한남체인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기는 365일,
고객과 함께하는
한남체인입니다

한남체인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대표: 하기환(공대 66)

한남체인

Los Angeles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orrance
토랜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Fullerton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Diamond Bar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La Palma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4

New Jersey
뉴저지점
(201) 224-0036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